

이재명·윤석열, '텃밭' 호남·영남서 각각 선두... 수도권이 승부가를까

[칼럼] 배워내고 사랑하며 부르는 이름 세종대왕 어가행렬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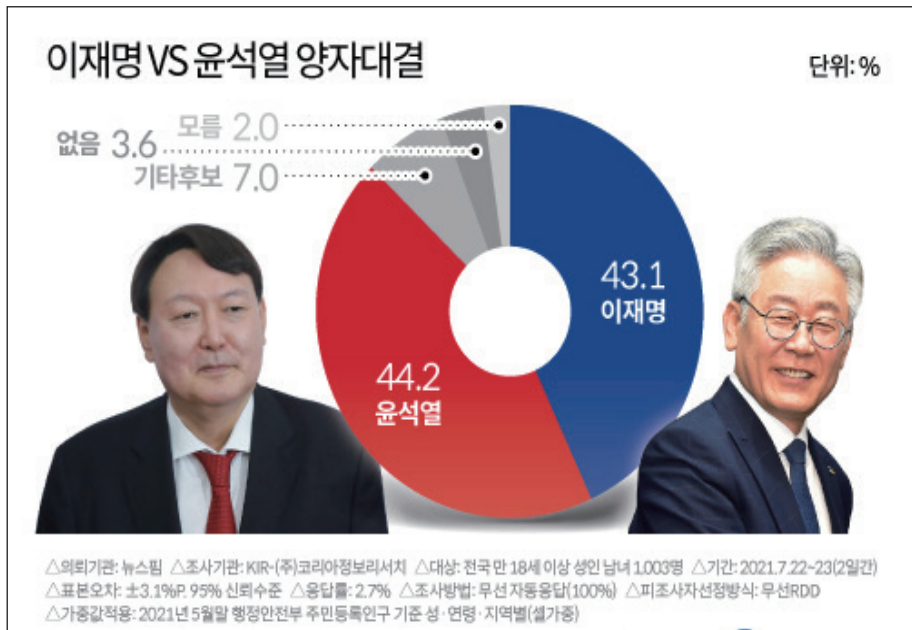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뉴스핌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호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영남에서 각각 앞서나갔다.

여야의 경선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진보·보수진영 '텃밭'에서 각각 우세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민심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세했으며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리할 공산이 커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진행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44.2%, 이 지사는 43.1%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광주·전라에서 66.2%를 기록하며 23.2%를 얻은 윤석열 전 총장을 크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TK)에서 55.6%를 기록하며 30.1%를 얻은 이재명 지사를 앞섰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49.8%를 기록하며 34.4%를 얻은 이재명 지사를 앞섰습니다.

전으로 나눠 집계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44.1%를 얻었으며 43.9%를 얻은 이재명 지사에 비해 겨우 0.2%p 차로 앞서나갔다.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6.2%를 얻으며 42.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 오차범위 내인 3.8%p 앞섰다.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가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수도권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서울이 19%, 경기·인천이 31% 정도로 합치면 50%, 과반인 지역"이라며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난다"고 설명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누가 나와도 1번(민주당)을 찍는다. 반대로 싫은 이들은 2번(국민의힘)을 찍는다"며 "투표하는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보면 양측이 각각 40이다. 결국 남은 20,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스윙보터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스윙보터는 대체로 수도권에 많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광화문은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 교대식이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는데, 전통악기로 취타를 연주하며 다양한 복색의 수문장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절도 있고 화려한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세종대왕이 용인에 머무른 세종실록 99권에 실린 세종25 (1443)년 3월 1일(음력) 원문에는 "임금이 왕비와 충청도 온양군 온천 가는 길, 용인현(현 용인시) 도천 냇가에 머물렀다. 이날 악공 15인에게 초저녁부터 밤까지 풍악을 연주하게 했고, 거리에는 백성들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대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이 왕비와 함께 행차한 어가행렬은 단 세 번 뿐이고, 이 세 번 모두 세종대왕이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에 머무른 기록은 용인이 유일하다. 이것을 기초로 세종대왕과 용인의 역사적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기흥) 지역민들에게 한발 다가 배우고 사랑하며 이름을 부르며 공감을 나누는 박남숙의원은 4선 의원으로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워낙 일을 똑소리 나게 잘해 지역에서 뚝심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박남숙의원은 세종이 용인현에 행차 한때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술발표회를 열고, "세종의 도시 용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종이 대동한 왕비인 소헌왕후를 위해 연



용인시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주했던 풍악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가칭 "소헌왕후 음악제"와 "세종 풍악 음악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국적인 음악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의회에 문화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박의원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어가행렬"은 특별히 용인시와 관련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료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이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가 재현행사"방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용인이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산업기지로 위상을 갖추고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어가행렬)을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문화 의식을 고취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관록(貫)의 4선 의원이다.

교수/김원호

전남도 김영록 지사,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현장 살펴

10일 신안 자은도 씨원 호텔·리조트...백길해수욕장 안전 점검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신안 자은도를 방문,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현장을 살펴보고, 개장 중인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 정광호·김문수 도의원 등과 함께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에 건설 중인 씨원 호텔·리조트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황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씨원호텔·리조트는 3동 9층(연면적 6만

181㎡) 533실 규모다. 전남도, 신안군과 2019년 투자협약(MOU)을 하고, 2020년 7월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객실 분양을 시작했고, 2022년 3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씨원호텔·리조트는 당초 호텔·리조트, 마린, 펜션단지 등 종합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적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파크 및 세계 각국의 테마 특화마을과 특화거리를 추가해 자은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총투자금액은 4천600억 원이다. 9월께 전남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해, 전남 서남해안을 대표할 명품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자은 해양관광단지는 인근 백길해수욕장과 면전 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2019년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체험 체류형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체류형 기반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기 씨원호텔·리조트 대표는 "그동안 건설산업을 통해 이룩한 기반을 문화, 관광, 체육, 레저산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며 "자은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서남해안을 대표할 또 하나의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는 머물고, 체험하고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이라며 "호텔과 펜션, 스포츠파크 등 복합 레저시설을 갖추게 될 자은 해양관광단지는 전남의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신안

군과 함께 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신안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을 둘러 안심콜 운영, 체온스티커 부착,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배부, 마스크 쓰기 및 야간취침 금지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과, 시설물 안전점검, 연안(물놀이) 사고 예방 현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바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고, 광양 물놀이 시설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휴가철 해수욕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동선 관리,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일체 점검을 했으며, 개장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1개소 1인 담당제를 운영해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등포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실효성 확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추진 방안으로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의 실증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지원,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지역 봉제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보육·배달·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권익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권 의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빈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을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해외 한국어 교육자 한 분 한 분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입니다

김정숙 여사, 'K-선생님 이음 한마당'에 영상축사

김정숙 여사는 오늘 "한국어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K-선생님에 감사하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명을 다하고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개최된 'K-선생님 이음 한마당'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전 세계 초·중·고교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선생님 이음 한마당'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K-선생님)들의 현장 경험 공유 및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한국어 교육자 1,070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그간 외국 순방 때마다 꼭 챙겨서 둘러보는 곳이 한국어 수업 교실과 한국어 관련 행사 현장이었다"며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학생들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함께 낭송한 일화를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열정은 한

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호의와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계신 K-선생님들의 건승을 응원한다"며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39개국, 1,669 개교에서 초·중·고교생 16만여 명이 한국어 학습을 수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82개국 234개소의 세종학당에서 연간 7만6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는 8만4천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말과 한글을 배



우며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광수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임이자 국회의원 상주·문경당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농어민수당지원방안 모색

10일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관련 온라인 화상 토론회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위원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상주시 당협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상주·문경 당협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선출직들과 주요 핵심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

당원교육 및 혜택, ▲지방소멸도시를 위한 개선방향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한 방법, ▲당원 1% 일정수이상 지역의 다른 공천방식, ▲화합과 소통을 위한 세분화된 대선토론회 일정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 등 다양

이준석 당대표 "내년 대선 국가의 명운이 걸려, 대선승리 의지 단결"

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제재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공직후보 출마자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의도가 있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 "대통령선거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떤 후보자가 되든, 후보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대선승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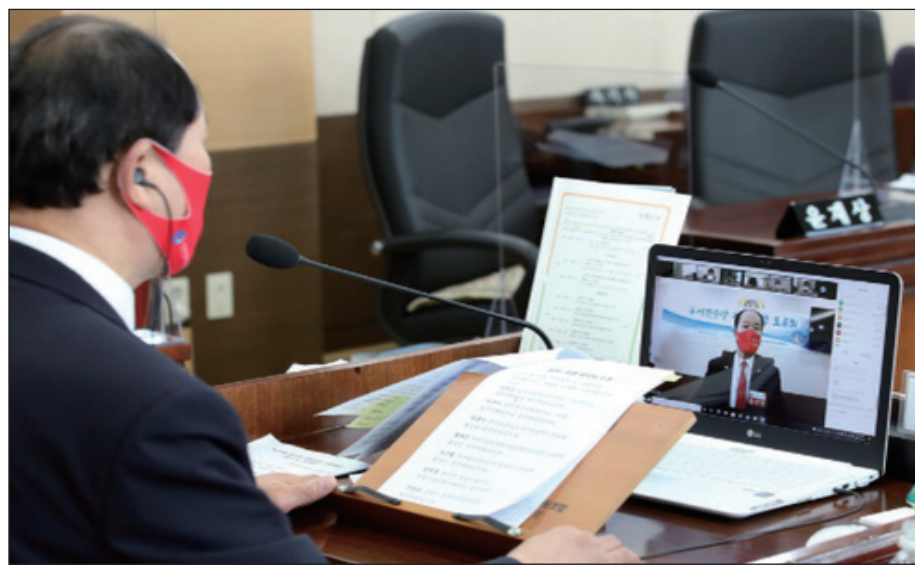
이에, 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당

원협의회이며 책임당원이 전국 최상위에 속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표를 중심으로 합심해야 하고,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정권교체의 간절함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결집하여 정권창출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대선승리에 대한 화답을 보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에게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당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원의 요청에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며 국민의힘 당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교육이 진행되는 13일까지 경북 지역의 당협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인천지역 농어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수당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관련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열었다.

윤재상(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이수미 연구기획팀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전성만 부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 앞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돼 인천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농어민 수당 조례 내용의 내실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미 팀장은 인천시의 농어민수당 예산 부담 필요성에 대해 언급과 함께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민 수당 전국 사례와 인천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성만 부연구위원은 공익형 직불제와 병입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제도와의 차별성, 중앙제도와 연계 여부, 지자체 재정 관계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 지자체 재정영향 검토와 인천시 농어민 수당의 가치 발굴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인천시연합회 박흥서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인천시연합회 최대진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인천시연합회 조근철 회장, 웅진농업기술센터 장세용 영농기술지원담당관, 인천시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 등이 참여해 ▲농어민수당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농어업인 수당 도입에 적극 동참 ▲농어민수당 임법 관련 사항 ▲농어민수당 전국사례 및 인천시 도입방안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 등을 강조하며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재상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을 둘러싼 제반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남/기자

울산시의회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 명정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여름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상황 점검



울산광역시의회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이 10일 오전 14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대표 문호성), 명정천을사랑하는모임(회장 주왕석), 녹색기후학교(대표 김영만) 등 20여 명과 "명정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명정천 주요오염원 현황을 김영만 녹색기후학교 대표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등 LID저영향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상옥 위원장은 "다운동과 태화동을 관류하는 도심하천인 명정천은 하천 주변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간 혁신도시 건설과 도로개설로 심하게 훼손되어 왔다."며 "하천정비와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불특정하게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정원과 인접한 하천인만큼 환경과 자연을 고려한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저영향개발"(LID)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김기현/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은 9일 경남도 서부청사를 방문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서부청사에서는 김기영 서부지역본부장, 정연상 농정국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등과 함께 참석했으며,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김해·밀양·남해·거창 등 4개 시군에서 운영 중으로,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3년까지 11개 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하용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으

로 채소, 과일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별로 활성화 되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와 수요자간 서로 윈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협마트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도내 농업분야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종로구, 한복대여점 지원 사업 공모... 이달 22일까지



종로구는 전통한복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운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종로 한복대여점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으로 구는 관내 '공식 한복대여점'을 인증, 올바른 한복문화를 확산시키고 한복대여점과 연계 사업을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한복대여업체이다. 사업자등록증 종목으로 '한복', '한복대여', '한복 제조' 등 관련 항목이 반드시 표기돼 있어야 한다.

방법은 종로한복축제 누리집을 참고해 서류 양식을 내려 받은 뒤 공모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등을 8월 22일까지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서류·매장 현장심사를 진행 예정이다. 위원들은 신청 사업체의 사업수행 역량에서부터 한복에 대한 이해도, 운영 능력과 전통 한복 보유 비율, 발전 가능성 등을 골고루 평가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9월 6일 발표한다.

공모 선정 시 혜택으로는 '종로구 공식 올바른 대여점 인증서',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한복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대여비(750만원)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종로구 및 문화재단 공식 홍보채널을 통한 대여점 알리기 역시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종로한복축제 누리집 내 공모문을 참고하거나, 종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7월, 전통한복의 이해를 도우려는 취지로 '예절을 담은 우리옷 이야기' 영상을 제작해 종로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예절과 우리옷'이라는 주제 하에 전통한복 명칭과 장신구, 착용 방법 등을 풍부하게 담아냈으며 전통문화공간 무게원과 곱다 한복체험관 등 한옥에서 촬영한 점이 돋보인다.

이밖에도 8월 한복 사진 공모전, 한복팔찌대회 참가자 모집에 이어 오는 10월 2021 종로한복축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중 구정장은 "전통문화 증가로서 한복 외에도 한옥, 한식, 한글, 우리소리, 우리 춤 등 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종로구와 손잡고 올바른 한복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한복대여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송파구, "송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주세요!"



있도록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연령대별로 ▲아동(만5~7세) 4명 ▲청소년(초·중·고교생) 4명 ▲성인(만19~60세 미만) 8명 ▲시니어(만60세 이상) 4명 등 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제2회 송파 구민모델'로 선발되면 △소식지, 미디어 영상 등 각종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거나 △구 주관 행사·축제 참석 및 홍보 △부서별 사업 홍보활동 지원 △구정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

각 연령별로 송파구민 또는 송파구 소재 학생, 직장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8월 20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자신을 촬영한 사진 5매(전신·상반신 각 1매 포함, 1천 픽셀 이상), 30초 이내 자기소개 영상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심사 결과를 8월 30일 개별 발표한 후 9월까지 2차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델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모델은 송파를 대표하는 구민이 직접 주요 정책과 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 뜻 깊은 활동"이라며, "참여하는 구민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및 광범위한 역학조사 강조"

강화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강화군은 9일 군수실에서 부군수, 안전산업국장을 비롯한 도시건설국의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유천호 군수는 "우리 군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에도 계속되는 확진자 소식에 걱정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달에만 10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군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 범위 등을 넓혀, 선제적인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커 가족 간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자를 철

저하게 관리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서 실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을 정비해 기존 직계가족 간 모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백신 인센티브가 미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유 군수는 "확진자와 그 가족, 방문 장소 또한 코로나19의 피해자이므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서울 중구, 도시경관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비 10억원 확보



중구는 북창동 먹자골목(남대문로1길) 일대가 지난 26일 서울시 '2022년 도시경관사업' 공모 대상지에 선정돼 사업비(시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광

희동 중앙아시아거리, 2020년 황학동 가구거리에 이은 3년 연속 선정이다.

도시경관사업은 역사·문화적 가치나 지역활성화 요소를 갖고 있는 지

역을 선정하여 가로환경 정비, 녹화, 야간 경관 정비 등 종합적인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거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창동 먹자골목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로 송래문, 덕수궁, 시청광장 등과도 접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이나, 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설물이나 디자인적 요소가 부족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등으로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경관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는 이 일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같은 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역을 선정하여 가로환경 정비, 녹화, 야간 경관 정비 등 종합적인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거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창동 먹자골목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로 송래문, 덕수궁, 시청광장 등과도 접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이나, 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설물이나 디자인적 요소가 부족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등으로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경관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는 이 일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같은 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전국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30%)의 2/3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는 달리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며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인슐린 주사를 직접 주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부담은 당뇨병 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인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혈당측정용센서 구입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1형 당뇨병 치료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지역주민 중 2021년에 당뇨병 관리기기(인슐린자동주입기·혈당연속측정기·혈당측정용센서)를 구매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이며, 2021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 의료비 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으로 어려웠을 때부터 관리해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게 희소식이 되기 바란다"며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석기자

종로구, 올여름 '북캉스' 어때요... 어린이 위한 저자 강연 등

종로구는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으로 '청운 랜선 북캉스'를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온라인 저자 강연회에 참여해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총 3회 차로 ▲8월 14일 최은옥 작가와 함께하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 '칠팔에 딱 붙은 아이들' ▲8월 21일 미우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공포의 새우는' ▲8월 28일 (토) 이진하 작가와 함께하는 숙제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 '여름방학 숙제 조각단' 순으로 이어진다.

대상은 초등학생 1~6학년이며 비용은 무료이다. 회차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청운문학도서관을 통해 직접 하면 된다.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강연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에 한해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별도 안내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내 도서관과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일환으로 8월 13일 '펭귄

의 집이 반으로 줄었어요' 저자 채인선 작가를 초청, 온라인 특강을 선보인다.

황제펭귄이 남극에 도착 기후변화 현상을 이겨내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내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펭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내용으로 꾸렸다.

자연 보호와 동물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누구나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소리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독서하면서 소소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쌓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 중이다. 바로 우리소리도서관 독서동아리 '가족과 함께 읽는 그림책'이다.

매월 주제를 정해 그림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물론 토론이나 만들기 활동도 병행한다. 이달의 추천도서인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펭귄의 집이 반으로 줄었어요'를 선정했다. 관련 문의는 우리소리도서관을 통해 받는다.

김영중 구정장은 "신나는 방학 기간이지만 코로나에 폭염까지 겹쳐 좀처럼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



낼 수 있도록 도서관별 저자 특강, 온라인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어린이와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옹진군, 백령·대청·소청 코로나19 임시(이동) 선별진료소 검사자 854명 '전원음성' 판정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지난 6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옹진군-8)에 따라 주민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백령·대청·소청에 코로나19 임시(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확진자가 발생 한 마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8월 6일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8월 7일에는 여객선을 이용한 주민과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임시(이동) 선별진료소 검사자 854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옹진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른 추세가 증가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주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

며,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방역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옹진군이 코로나 19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2학기 수강생 모집...4차 산업 관련 등 256개 강좌

서울시 50플러스재단, 4개 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 교육과정 수강생 5,270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 50+세대(만 50~64세)의 삶의 전환과 프로그램을 마련, 2021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재단은 50+세대가 은퇴 이후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부·중부·남부·북부 등 4개의 캠퍼스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2021년 2학기 교육과정은 총 256개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전체 과정의 43%(110개 과정, 온·오프라인 병행과정 포함)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캠퍼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50+세대의 일상 전환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신

직업 소개와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무료 특강을 마련해 새롭게 변화한 삶의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문 강좌도 강화했다.

특별한 자본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관련 강좌도 다수 개설, 인공지능·드론·3D프린팅 등 4차 산업 관련 강좌와 50+세대의 특성에 맞춘 신직업 소개 강좌도 마련되었다.

향후 50+정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관련 교육 수강 이후, '50+자원봉사단' 활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운영하여 인생전환기의 변화를 맞이하는 50+세대의 인식 전환은 물론,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5년을 짝 채워 운영 중인 50플러스캠퍼스의 대표 입문 프로그램 '50+인생학교' 과정도 중부, 북부 캠퍼스에서 개설된다.

'50+인생학교'는 전환기, 새로운 인생비전을 개척하는 50+세대를 위한 자기이해 영역의 대표적인 과정이다. 11주간 다양한 예술수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정비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해보는 적극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며 함께 할 동료들도 얻을 수 있다.

각 캠퍼스별로 배출된 18기까지의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형성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부, 북부캠퍼스에서 과정이 개설되어 6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과정별 마감 시까지 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과 강사, 정원, 수강료 등 상세한 내용 역시 50+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분은 선착순 마감하며 일부 강좌의 경우 선발 과정을 거치거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강좌별 신청 조건도 50+포털에서 미리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 고선주 본부장은 "재단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50+세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50+세대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연계·자원봉사활동 제공 등 수강 후 후속활동의 연계를 탄탄하게 지원, 50+세대의 사회참여와 삶의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문체부 주관 '지역문화대상' 수상 쾌거!

계양e음의 부자 되는 소비 '혜택 플러스(+)'



서울 서초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지역문화대상'에서 서초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문화대상'은 문화자치, 문화포용, 문화혁신

3개 부문에서 지역문화로 창의적 혁신을 달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구는 주민자치부문에서 '지역사회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 클래식 음악문화도시'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사업비 3천만 원도 지원받는다.

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 일대의 문화인프라를 활용해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제도 정비·문화재정확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구는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지역문화 관계자 회의 및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하는 활발한 소통을 진행해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구는 주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음악문화지구 일대에 지역주민 협의체인 '타운메니지먼트'를 구성,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며 문화 사업을 발굴·실행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음악문화지구 인근 경관사업도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비전위원회를 운영해 신중조교 입구 및 맨홀, 펜스 등 도로시설물에 음악디자인사업도 진행했다.

또, 구는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등의 제도 정비와 함께 총 143억원을 문화지구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는 등 문화재원을 확충했다.

이외에도 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청년 예술

특화 전시공간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를 비롯해 ▲음악문화지구 육성의 중심 거점이자 공연 공간을 제공하는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청년 예술인들의 보금자리인 '서리풀청년아트타운' 등이 그것이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원받는 3천만 원을 음악문화지구 지역연계 투어프로그램인 '클래식악기탐구생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악기공방, 공연장 등 시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문화소외아동대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활동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시작으로 서초전역에 문화예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계양구의 지역화폐 계양e음이 지난해 3월 출시 후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7월 말 현재 계양e음 카드 사용자는 67,046명으로 누적 결제액이 1천 340억 원에 달한다. 회원가입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계양e음 카드를 사용하면 월 이용 금액의 50만 원까지 10%를 그 후 100만 원까지 1%를 캐시로 돌려받는 혜택과 더불어 최근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용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가계인 '혜택 플러스(+)' 가맹점들이 늘고 있다.

작년 말까지 200여 업체 정도였으나 올해 460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말까지 더 많은 가맹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계양e음 카드를 계양구 내의 혜택플러스 가게에서 사용할 경우 가격 할인 외에 추가로 5%의 캐시백을 돌려준다.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보다 최대 20%의 혜택을 받는다는 계양e음 카드를 사용할수록 사용자, 지역 소상공인, 지역경제 모두에 혜택이 더해진다.

계양구에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의 할인액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점을 늘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플러스가맹점 확인은 인천e음(앱)에서 '혜택+' 아이콘을 누르거나 가맹점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천e음에 배달e음(공공배달서비스)앱까지 개통되어 e음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해졌다. 향후에는 전통시장 물품도 장보기가 가능해질 계획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계양e음 카드를 통한 소비 촉진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검단농협,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인천 서구에 상품권 전달

제4기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동작구, 10분! 운동노트로 뇌 건강 지켜요!



부평구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제4기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조직이다. 이번 4기 서포터즈에는 지역 주민 25명이 소속되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전달, 성인지갑수령 향상 교육, 서포터즈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제도개선사항 제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차준택 구정장은 "서포터즈의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활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함께 행복한 부평 만들기에 앞장 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을 1기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포터즈는 공공기관 성인지 모니터링, 500보 사업지 현장심사 및 벽화작업 참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 활동해 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검단농협 임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동작구는 작년 기준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운동이 강력한 치매 예방 수칙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현재 여러 연구를 통해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40%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들의 뇌 건강을 위해 10분! 운동노트 스트레칭 1편(이하 운동노트)을 제작하고,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인 '동치미(동작구 치매 지킴이) 티비'에서 운동상식 퀴즈 풀이를 진행한다.

운동노트는 치매안심센터 운동처방사가 연구하고 제작한 첫 번째 책자로 ▲운동의 필요성 ▲노트 활용법 ▲상체 및 하체 스트레칭 방법 ▲운동상식 퀴즈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주 운동노트 2·3편도 제작할 예정

이다.

유튜브 채널 '동치미 티비'에서는 운동 상식 퀴즈를 풀이하는 동영상 을 올려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치매와 운동의 관계,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능한 운동 방법을 알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 기검진·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인천 중구, 새벽 1시까지 문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천 군·구 최초로 2020년부터 운영...의약품 구입 편의 등 제공

인천 중구는 인천 군·구 최초로 심야시간대에 지역주민의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자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시에서 지정한 인일약국, 구에서 지정한 영인약국, 하늘그린약국으로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인일약국은 매일 밤 10시~새벽 1시, 영인약국은 매주 토, 일 밤 10시~새벽 1시, 하늘그린약국은 매주 화, 금 밤 10시~새벽 1시까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구는 약국 이외에 편의점 등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



입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발생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 이외의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영종국제도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 추가지정을 위해 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천명서)와 협의 중이다.

김중남/기자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위반행위 집중 조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농막 등 조사...농지원부도 일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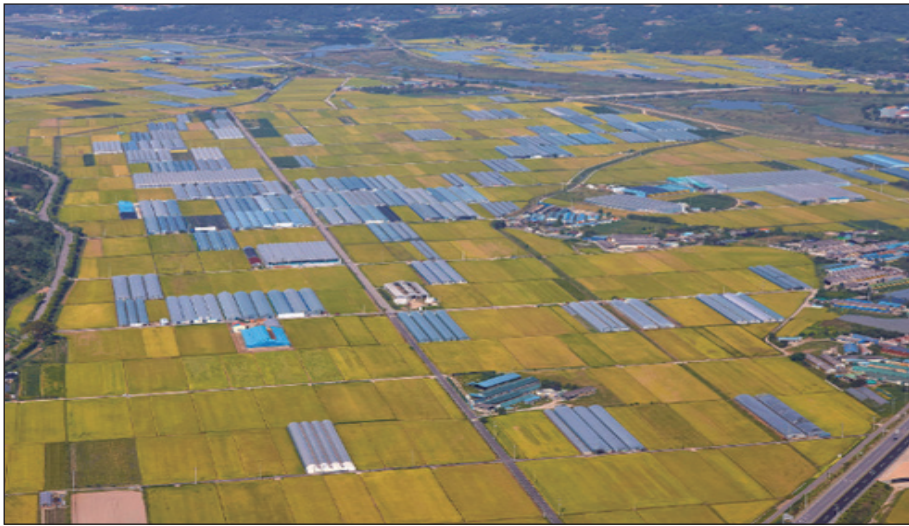
화순군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는 전수 조사를 펼쳐 농업 경영 여부,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

두 불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토사 1m이하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확인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

화순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일제 정비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808건 중 3만8644건(88%)을 완료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를 비교해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창원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불법영업 강력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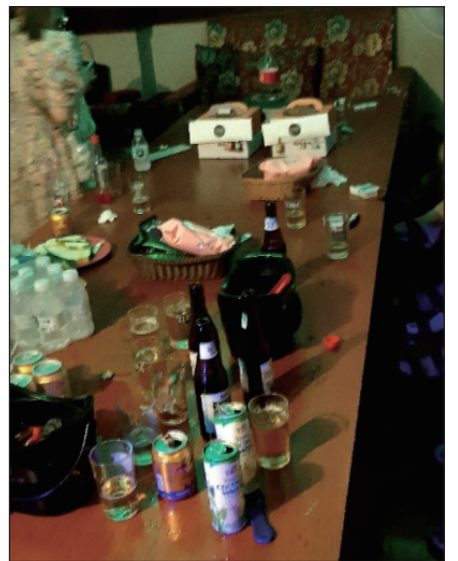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

창원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에 따라, 현재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펍게임장) 및 노래(코인)연습장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해 왔던 해당 업소들은 8월 9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시는 경찰 합동 기동단속 등을 통해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한다.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82개소, 이용자 265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한 운영 중단, 고발 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부산시, 불법영업 32개소 적발, 유흥시설·식당·카페 특별단속 연장 실시

부산시 특사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불법 영업 특별단속 2주 연장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늘(10일)부터 8월 22일

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변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

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태는 ▲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 일

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며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영업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및 종사자 또한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영기자

순창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순창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8월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에 5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소는 순창교육지원청, 공음버스터미널, 남원삼거리, 재래시장 사거리 등이다. 터미널과 교육지원청사거리는 교체

설치이며 남원삼거리, 재래시장 사거리는 신규로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중앙로 교육지원청 사거리부터 코코엔카까지 도로 양면의 노상주차장 14개면도 폐지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됐다.

이선수기자

경남도·경남경찰청·(주)에스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경 협력 강화

경남남도는 5일 경남경찰청, ㈜에스원과 함께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19년도에 체결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만들기' 업무 협약에 따라 민·관·경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철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3개 기관 각 2명씩 2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남경찰청과 에스원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번 점검 외에도 도내 각 시·군에

서도 불법촬영 상시점검 및 합동점검반이 운영 중이며, 경남경찰청에서는 불법카메라 현장시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한미영 도 여성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민·관·경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불법카메라 가상현실(vr) 체험구역 등을 운영 중이며, 올 1월부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식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지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7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는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개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 경기도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20건 공익제보에 총 5,363만원 지급 결정

포상금 상향 (금전적 처분액의 30% 지급) 2021. 4월 부터

고금리 불법대부행위 조직 제보 (사태1)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 (사태2)	경유 2,000L 무허가 저장유류급 사업장 제보 (사태3)	공공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 방지 시설 제보 (사태4)
3,090만원	500만원	40만원	30만원

제보하기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hotline.gg.go.kr ☎2580

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

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우 2,000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성남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성남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협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참여와 활동,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은 지정주제와 자율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정주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일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기 충전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 함께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 2개로 구성된다.

자율주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일 상상 마을공동체'로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사업비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8월 9일에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으로 제공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화를 통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성욱/기자

고양시, 커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2021 고양커피문화축제, 10월 1일~ 3일 일산호수공원 개최

고양시가 2021 고양커피문화축제에 참여할 지역카페 및 커피 관련용품 업체들의 참여 신청을 8월 17일까지 받는다.

2021고양커피문화축제는 고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커피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커피도시 고양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고양시의 커피 관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양커피문화축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는 커피관련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존, 지역 카페와 함께하는 문화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존으

로 구성된다.

산업존에서는 15개 업체를 선정해 커피머신&장비, 홈 카페용품, 커피관련용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문화존은 20개 업체를 선정해 지역카페, 커피관련 수제품, 커피트럭을 선보인다.

시는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할 50여 개 업체 또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천년안산, 시민과 함께 역사바로세운다"

안산시가 다가오는 광복 76주년을 맞아 1천년 안산 역사 정립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안산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시민참여 SNS 캠페인을 비롯해 태극 종이배 설치, 역사현장 방문, 역사 바로 알기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9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는 '시민들의 인식과 기억 속에서 역사가 바로 서야 안산시의 정체성과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라며 "1천년 안산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安山)'이라는 지명이 역사상 첫 등장한 고려시대 이후 1천년이 넘게 흐른 지금,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 민선7기 안산시가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며 성장 동력에 힘을 더한다.

'천년안산', 시작은 고려시대 '안산'이라는 지명이 정확히 언제부터 불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 편찬한 '고려사 지리지(地理志)'를 통해 안산이라는 지명의 등장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1451년 완성된 고려시대 지리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고려사 지리지에는 지금의 안산시 일대를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 안산군(安山郡)으로 고쳤다. 현종 9년(1018년) 수주(水州·지금의 수원)에 소속됐다'고 적었다.

지방 군현의 명칭을 개정한 고려시대 초는 940년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안산 역사가 1천년이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민족정기 말살정책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강압적으로 사라진 안산은 1986년 시(市) 승격과 함께 지명을 되찾아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선7기 안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천년안산'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무얼 하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은 시민이다.

시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안산시 공식 SNS 5개 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카카오톡 채널·카카오스토리)로 시민참여 캠페인 '온라인 태극기 게양'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게재된 게시물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1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직접 그린 태극기 또는 실제 태극기 게양 인증사진을 함께 게시물에 첨부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온라인 태극기 콘텐츠 제작할 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윤화섭 시장은 1890년대 구한말 당시 한(조선)·중(청국)·일(일본) 3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침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을 되짚어보는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윤 시장은 9일 풍도해전이 벌어졌던 해역과 풍도등대, 청나라 군사 묘지 등을 방문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잊힌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전쟁, 태리,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재난·재해가 일어난 장소를 둘러보며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인 '다크투어' 등을 기획해 풍도를 역사·문화유산 관광지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태극 종이배가 안산호수공원 내 호수에 띄어진다. 과거 안산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리포구가 있던 호수공원에 상징물이 될 태극 종이배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산의 역사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참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안산시 공식 유튜브로 역사 바로 알기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된다. 안산 향토역사학자와 정병모 경주대 교수가 참여해 안산과 관련한 유래와 역사, 단원 김홍도와 안산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정 교수는 김홍도의 '공원춘효도'를 68년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밖에도 윤화섭 시장은 오는 13일 안산지역에서 처음 독립만세 외침이 울려 퍼진 처음 비석거거리(현재 안산동)를 찾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한편, 항일유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수암면 비석거리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9년 3월30일 독립운동이 발생했던 장소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15일에는 시 유튜브를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천년안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다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은 역사에 등장한지 1천년이 넘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며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과거를 바로 잡고, 안산시민이 더 자부심을 갖고 안산에 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민선7기 안산시의 역사 정립 성과는

안산시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기존 시가(市歌) '안산시민의 노래' 사용을 중단했다. 해당 노래를 작곡한 김동진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시는 이후 안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안산시민의 노래'를 제정했다.

올 3월에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위해 125여년 만에 풍도 지명을 기존 일본식 표기 '풍성할 풍(豊)'에서 고유이름 '단풍나무 풍(楓)'으로 정비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단풍나무가 많아 단풍나무 풍(楓)을 쓴 풍도는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식 이름인 풍성할 풍(豊)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윤화섭 시장은 "잊혀져가는 역사를 발굴하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께서 캠페인 주간에 즐기며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구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6곳에 노란신호등 교체 완료



구리시는 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5일 공사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6개소 총 164대의 기존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했다.

2018년 인장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공사를 마무리하며 시는 초등학교 16개소, 유치원 3개소 등 총 1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존 설치된 신호등 529대를 노란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게 되었다.

안승남 시장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설치하는 신호등과 지주 일체를 노란색으로 시공하고, 옐로카펫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운전자에게 높은 시인성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사와 7월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5개소와 '노란발자국' 3개소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TAAS(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구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만식/기자

수원시립미술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플러스 친구 맺기 이벤트 개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관람객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내 미술관 채널을 개설한다.

카카오톡은 약 3,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로, 수원시립 미술관 4개관의 전시, 교육, 행사 등의 소식을 '플러스 친구(플친)'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해 관람객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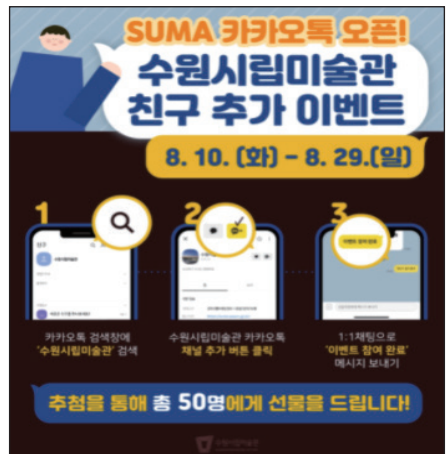
채널 개설 기념으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과 플

친 맺기 이벤트를 실시해 총 50명에게 치킨 쿠폰,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수원시립미술관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한 후, '이벤트 참여 완료' 메시지를 채팅창에 입력하면 된다.

수원시립미술관 김진엽 관장은 "이번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개설은 관람객들과 빠르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부천시, 오는 16일부터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부천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및 가톨릭대학교와 협력하여 '2021년 지역

사회건강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17개 시·도, 255개 보건소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한 자료는 지역사회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보건사업 계획수립과 실행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부천시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2,728명이다. 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한 전담 조사원이 선정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1:1 면접 조사로 진행된다.

2021년 조사에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손 씻기 실천, 방역수칙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 문항이 포

함된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조사 기간 중 매일 체온 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조사기간 내내 마스크 착용, 방문 전후 손 소독 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 대학교인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조사원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를 매일 확인할 계획이며,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조사가구 중 자가격리 가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조사과정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부천시의 전반적인 지역 건강 수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정된 가구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군포시 민관협치기구, 100인 위원회 2기 '10월 초 출범'



군포시는 민관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 1기의 2년 임기가 오는 10월 초에 종료됨에 따라 2기 100인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기 100인 위원회 인원은 100명이며 공개모집 70명, 시장 추천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공개모집 신청 자격은 공고일(8월 10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군포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하며, 군포시청 유튜브에 게시된 100인 위원회 관련

사전교육 동영상 시청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8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며, 방문(군포시청 별관 4층 자치분권과 협치지원팀), 군포시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네이버폼 QR코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9월 안으로 서류와 자격 적격 심사 등 두차례 심사를 거쳐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30명을 선발하는 시장추천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의원 당연 추천을, 희망하는 시의원에 한해 시장이 추천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시의원의 100인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는 100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100인 위원회 산하 공론화분과, 시정참여분과, 당사자분과 중 당사자분과의 소위원회는 중회의 5개에서 복지와 가정 관련 소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8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위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00인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공론장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세밀히 하고 위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해서 아이디어의 시정 반영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대의 시장은 "1기 100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민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치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1기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2기 위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군포 발전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2기 100인 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군포시 100인 위원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조례 제정에서부터 회의의 진행, 사업 추진, 공론장 운영과 시정 반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이해당사자들의 자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이 100인 위원회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총회를 열어, 더 나은 시민소통과 민관협치 노력을 골자로 하는 '군포시민들께 드리는 2021년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대의 시장은 "시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민선 7기 시정구호에 걸맞도록 100인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풀뿌리 자치 구현, 민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종균/기자

구리시, 친환경 '비대면 줍깅 스탬프 투어 챌린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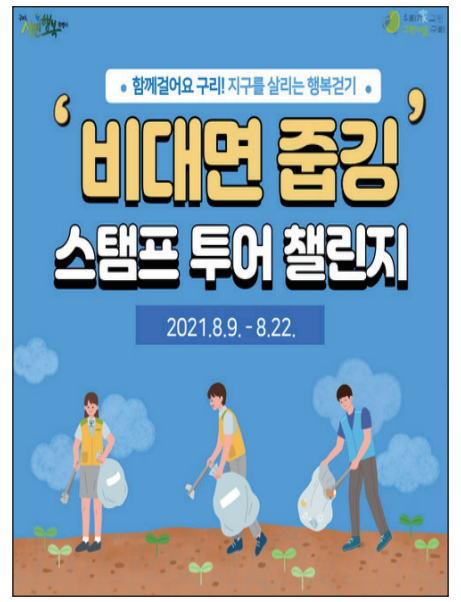
조깅하고! 쓰레기 줍고! 나부터 실천하는 환경보호

구리시는 9일부터 시민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비대면 줍깅 스탬프 투어 챌린지'를 운영한다.

'줍깅'이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로 가볍게 산책을 하며 환경정화를 하는 활동을 뜻한다. 줍깅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친환경 비대면 활동이다. 시는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

진행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구리시 공원 50개소에서 줍깅 활동을 한 후 스탬프를 5개 이상 받고 인증 사진을 게시한 100명을 추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별도 신청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해준다.

참여 희망자는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을 내려받아 구리시 공식



커뮤니티 '함께 걸어요! 구리'에 가입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줍깅 스탬프 투어 챌린지'에 '참여하기'버튼을 누른 후 참여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줍깅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동참하여 환경보호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여주시, '여주시장이 찾아가는 마을방문' 북내면 중암2리 토봉마을에서 미래를 설계하다



여주시 북내면은 8월9일 이항진 여주시장과 북내면 중암2리에서 '찾아가는 마을방문'을 실시했다.

이 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북내면장(김윤성), 북내면이장협의회장(이명호), 북내면 중암2리장(박은교) 및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며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중암2리는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마을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토종별 생산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밀원식물인 꽃과 나무를 마을 곳곳에 심고 주민들이 직접 토종별을 길러 마을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암2리에 있는 채석장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암벽등반, 겨울엔 빙벽등반을 하는 실외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KY레저 대표이사(유용승)와 채석장을 둘러보며 전국의 암벽등반 마니아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중암2리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중암2리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암2리 이장(박은교)은 "시장님이 직접 마을에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어 든든하다. 중암2리 토종별 사업을 발전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욱/기자

수원시 권선구청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점검 나서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6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주의보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코로나19 대비한 방역 운영수칙 준수 여부 ▲에어컨 가동 여부 ▲감염관리자 지정여부이며,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관내 171개 경로당 중 개방 희망 시설 72개소를 무더위쉼터로 개방 운영 중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이용대상은 백신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들이며 쉼터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하고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서경보 권선구청장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폭염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부천시, 사회적기업 88DAY기프트박스 전달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6일 '부천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88DAY'를 개최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62개소 이용 아동과 가은병원, 휴엔유병원의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위해 기프트박스 2,695개(8,08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한편, 2018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88DAY는 '8월 8일 하루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추억을 만드는 날'을 의미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년 진행하던 물놀이 행사에서 기프트박스 증정 행사로 대체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에게도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친 의

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승모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4월에는 '그냥 드립'코너에 선물세트 300박스를 후원하였으며, 6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기간 동안 부천시 어르신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온오프 상영회 및 XR 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칠곡군, 네편 내편 구분 없이...마을 주민이 개최한 '328고지 전투 희생자' 위령제

영주시 홍보대사 '엄홍길 산악대장 · 이시형 박사' 위촉

“한중의 유해는 아군도 적군도 아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한 맺힌 영혼일 뿐입니다”

6.25전쟁으로 희생된 국군은 물론 북한군의 넘겨진 기리는 이례적인 위령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1리 주민들은 지난 8일 328고지와 수암산 자락에서 목숨을 잃은 넋을 위로하기 위해 '328고지 위령제'를 개최했다.

328고지에서 1950년 8월 13~24일 국군 1사단과 북한군 3사단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아군 1만 여명, 북한군 1만7천 여명이 산화했다.

계곡마다 피로 물들고 능선마다 유해가 가득했으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된 장소이기도 하다.

망정1리는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대의 격전지였던 328고지가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탄약, 식량 등의 군수물자를 지계에 쫓겨지고 328고지를 방



어하던 아군에게 공급해 호국마을이라 불리게 됐다.

망정1리 주민들은 2018년부터 8월 둘째 주 일요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328고지 쟁탈전을 펼친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교전으로 1950년 8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을 남자들은 공동 경비로 위령제에 올릴 신선한 음식을 고르기 위해 직접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다.

부녀회원들은 남자들이 마련한 식재료를 위령제가 열리기 하루 전부터 장만하기 시작해 위령제 당일에는 새벽 6시부터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위령제는 경기민요 57호 전주사

인 민진기 선생의 영혼을 달래는 '비나리'전통 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윤병규 망정1리장 조현례와 배석은 칠곡향교 독축, 정희용 국회의원 아현례, 심정보 칠곡군의원 종현례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규 망정1리 이장은 "우리 마을 주민에게는 328고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큰 슬픔이자 아픔"이라며 "전쟁의 아픔이 가장 큰 이곳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채 알기도 전에 이를 모를 계곡·능선에서 희생하신 피아의 영혼을 모신 자리"라며 "적군이더라도 천리 타향에서 산천을 방황하는 영령들이 고이 영면할 것을 기원하는 게 호국 평화 도시의 도리라고 본다. 328고지에 호국탑 방향을 개설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향후 3년간 영주시의 얼굴로 다양한 홍보활동 기대

영주시는 9일 오전 11시 30분 직소민원실에서 엄홍길 산악대장과 이시형 의학박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두 사람이 영주시와 꾸준히 유대관계를 맺고 대내외적인 홍보와 발전에 다양한 공로를 인정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엄홍길 산악대장이 참석했으며, 이시형 박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서면 위촉했다.

엄홍길 산악인은 각종 행사에서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소백산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홍보해 대외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영주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로 2011년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2021영주온라인소백산철쭉제' 기간 중 유튜브 '영주소백산 캠핑 라이브토크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소백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생동감있는 영상으로 선물했다.

이시형 박사는 세로토닌문화운동 핵심사업으로 인연을 맺어 시가 청소년 문화운동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청소년



문화발전예에 공헌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앞으로 3년간 주요 공식 행사 참석,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등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엄홍길 산악대장은 "영주의 얼굴로서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욱현 시장은 "지역축제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투자유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등 널리 알려 '찾고 싶은 도시 영주만들기'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 홍보대사로서 개그맨 이상훈, 권미진 등 5인이 시 대표축제 및 브랜드를 홍보해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달서구, 별(의)별 아이디어 달인은 바로 ~~~오!!

2021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의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1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생활 속 개선할 다양한 발명아이디어 130건이 접수돼 경쟁을 벌였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문가의 선별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 7건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경북대학교 4학년 유용운 학생의 'NFC기반 농지정보 기록형 자동도양 시료 채취 포장기' 아이디어는 정확한 양의 시료를 채취하고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자

동으로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차후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데이터농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디어이다.

총 시상금 5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특히, 우수 발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원·등록 비용 지원 등 조건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스마트 지식재산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 본래의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상하고 도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력이다. 앞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영양군,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명맥을 잇기 위한" 2021년 선바위 풍물패 운영



입암면행정복지센터는 8월 6일부터 매주 1회 선바위 풍물패 운영을 시작한다.

영양군 대표 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읍면 풍물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여 큰 성과를 내던 선바위 풍물패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읍면 풍물경연대회가 취소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바위 풍물패 명맥을 잇기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풍물패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이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고, 하루 일과로 지친 농민들에게 문화생활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선바위 풍물패 회원인 김모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풍물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행사 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풍물패가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풍물패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영양군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풍물패 운영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선바위 풍물패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김세기기자

문경시, 영순면 오룡지구 신규마을 분양

㎡ 당 17~19만 원, 50가구 분양

문경시는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룡지구 신규마을'을 8월 10일까지 분양 공고한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은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원에 55,621㎡를 조성하여 필지 당 500㎡에서 550㎡의 규모로 택지 50필지를 분양한다.

2층 이하의 경사지붕의 주거형태를 조건으로 하며 분양신청 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며, 분양단가는 평당 58~65만원이다.

분양대금은 분양 예정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예정가의 60%), 잔금(예정가의 10%)을 납부하여야 하며 택지에 대한 초과 분

양 신청 시에는 공개 추첨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접수는 8월 10일까지 문경시 관외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희망 필지를 우선 분양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분양공고장에서 확인하거나 문경시청 농촌활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분양가격을 대폭 낮춰 분양하는 만큼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며, 문경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기는 청송!! 두근두근 성장캠프" 가져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월 9일 ~ 10일 관내 일원에서 "여기는 청송!! 두근두근 성장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2021년 하반기 방과후아카데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캠프, 직업 및 요리체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하였으며, 주왕산면에서 수제 쿠키만들기(진로체험)와 꽃차이하기 교육을, 부남면 청송오로캠핑장에서 물놀이,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 뿐만 아니라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들이 직접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을 펼치기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해 아쉬웠지만 체험활동과 플래시몹으로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며 "친구들과 처음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오랜만에 야외활동을 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내실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영덕군 복숭아장터 라이브커머스 판로 확대

라이브커머스로 지역 직거래 장터의 새로운 희망을 쏘다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영덕읍 남산리와 영해면 영덕휴게소에 30동 규모로 복숭아 장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로 인한 방문 및 구매 고객의 감소를 고려하여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유통경로인 라이브커머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및 대구MBC와 산지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전을 마련하여 복숭아밭 현지 생방송을 비롯하여, 복숭아 장터, 대구MBC 스튜디오에서 총 3회에 걸쳐 '네이버 쇼플레이브' 플랫폼을 통해 영덕 복숭아를 홍보·판매하였으며, 총 2만 3천여명이 시청하는 성과를 올렸다.

영덕군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6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조생종을 비롯하여 중만생종(7월말에서 8월초), 만생종(8월중순에서 8월말)으로 수확 시기별로 품종을 적절하게 분산 식재하여 농가의 일손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복숭아장터에서는 경봉과 백도, 황도 위주로 판촉을 하고 있으며,



아삭한 식감과 당도가 높은 생과용 복숭아에 매료된 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복숭아 재배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이번 복숭아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뿐만 아니라 추석명절과 과일수확 시기에 사과, 배, 포도, 물가자미 등 다양한 영덕 농특산물의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어가의 유통경로 다양화로 소득증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영덕군 이희진 군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비대면 물품구매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소비경향으로 지속적인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국 최다 선정!

위기가구 발굴 및 필요한 서비스 종합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복기 및 재해석 통해 업무 전문성 강화 도모

부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1년 다시쓰는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7개 상을 휩쓸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 최우수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주민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

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현장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진되었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응모하였으며, 김수정 통합사례관리사(동래구)가 영예의 대상을 휩쓸기 통합사례관리사(사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어 김선희, 최효진 통합사례관리사(해운대구)와 김종남 통합사례관리사(수영구)가 우수상을 박미옥, 허은정 통합사례관리사(해운대구)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부산에서만 총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김수정 통합사례관리사는 「1인 청장년 알뜰 중독, 정신 질환 가구 개입사례 "침해하는가? 침해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알뜰 및 정신 질환 치료를 거부했

던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 통합의 딜레마에 빠져 사례관리 수행 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당시에 사례관리 내역을 돌아보며 성장과 발전된 개입을 위한 방안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호평을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모전이 통합사례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역기관들과 협력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각지대 발굴 가정과 위기가정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는 16개 구·군에 사례관리 전문가인 통합사례관리사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협력하며 지역 내 고난도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돕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산청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1번만 납부

지방세법 개정 ... 재산분·균등분 하나로 통합



산청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

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재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서면신고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산청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

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 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000원~22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2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원 이하의 법인만 해당)는 기존 5만5000원에서 50% 감면된 2만7500원의 기

본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1700여개 사업장이 약 4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과 달리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 부과된다. 산청군은 올해 1만7000여건, 약 1억9000만원의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고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거제시 박환기 부시장,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른 어류양식어업인 격려

거제시 박환기 부시장은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 4일 경보로 대체 발령됨에 따라 지난 6일 어류양식 현장을 방문했다.

휴가 중에 있는 업종 거제수협장도 고수온으로 양식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동행했다. 피해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어류양식 어업인을 만나 작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업에 전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어업인은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공급, 차광망, 사육밀도 조절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 약

간의 어류 피해가 있어 안타깝다"며 "자연현상을 이겨내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박환기 부시장은 어업인에게 "지금도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에서도 어업인의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8월 6일 기준 거제시 해역 수온은 28℃를 웃돌고 있다.

거제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온 변동 현상을 모니터링해 어업인에게 이상관리요령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폭염과 사투중인 코로나19 지원인력 응원

3천3백만원 상당 응원키트 1,010개 전달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총괄 부사장 유재영)는 (사)울산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정태)와 함께 폭염 속에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의료진 및 지원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응원키트 1,010개를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임직원들은 8월 9일, 10일 양일에 걸쳐 남구보건소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관할 12개소 방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손수 제작한 응원키트를 전달하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이어갔다.

응원키트는 냉장 캔음료와 수제 쿠키 세트, 홍삼 스틱 등으로 구성했으며, 소요경비(3천3백만원)는 SK 구성원들의 급여 1%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1% 행복나눔기금'으로 마련했다.

9일 오후, 남구보건소를 찾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방호복 차림으로 코로나19와 싸우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울산시민의 영웅, 의료진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탐과 노력이 하루 속히 코로나19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SK는 계속 감사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역현장 격려방문에 함께 한 서동욱 남구청장은 "방역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응원을 보내 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보이지 않는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계자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는 지난 5월 6일에도 햄버거세트, 과일도시락, 캔커피로 구성된 2,000만원 상당의 간식세트를 지원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다.

김기현기자

‘김해시-중국 공동체’ 협약 및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재난상황 공동대응을 위한



김해시는 8일 김해시-중국 공동체 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난상황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과 재난 상황에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대처함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국가별 외국인 공동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되었다.

외국인 공동체와의 예정된 협약식 총 5개국(우즈베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중 지난 7월 10일 우

즈베크스탄 공동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7월 22일 베트남과의 협약을 개최하였고, 금회 중국과의 협약을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및 협력 ▲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대 및 협력 ▲ 위기에 처한 외국인 발굴 및 지원 연계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 안전 재난 및 생활 정보를 공유 ▲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 적응 사업을 추진 ▲ 위기에 처한 외국인

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 ▲ 협약 주체 간 세부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외국인 공동체는 ▲ 외국인주민이 김해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동참해야 한다.

김해시는 외국인주민이 31,744명(’20.10.30. 통계청 발표)으로 경남도 내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전파, 번역안내문 배포, 외국인 시설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통역인력 구성 뿐 아니라 김해중부경찰서·김해다문화치안센터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이용이 많은 동상시장과 중로길 등을 찾아 합동으로 주말과 야간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임주택 시민복지국장은 "외국인 공동체와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공동체와 소통하며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하동군, ‘알프스하동TV’구독하면 선물이 와르르!

하동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 ‘알프스하동TV’ 구독자 확보 및 홍보 전파력 제고를 위해 10~19일 10일간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는 SNS 이용자 누구나 유튜브에서 ‘알프스하동TV’를 검색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9월 중 하동그린티 라운드사 또는 1만원 CU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행정과 미디어정보담당부서로 문의하

면 된다.

손성숙 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진 만큼 SNS 채널을 통해 하동의 소식을 전하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강영훈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국비 확보 기재부 공략

완주군이 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 안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9일 기획재정부 부를 방문해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국립 나라꽃 무궁화센터 조성' 등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강하게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장보영 기재부 고등관에게 예산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난 3년 동안 6,900여개 늘고 종사자도 3만 2,000여명 급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 1번지인 완주와 연계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핵심리더와 현장 활동가, 전문강사, 종사자 등의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완주 쪽 전북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내년도 용역비 4억 원 반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완주군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전국 1호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문체부로부터 '공동체 문화도시'로 지정 받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관련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국립 인재개발원을 건립



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또 정유리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에게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에 '신재생 연계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증설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1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국내 에너지 저장시스템 화재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안전 기준 중요성과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6월 해당부서인 과기부 4차 예산심의에서 10억 원이 통과된 바 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품종 육성과 보급 등을 담당할 완주지역 내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을 위해 용역비와 기반시설비 6억 원 반영도 절실하다"며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완주군은 이들 3대 현안이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전을 경주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각 부처 예산심의의 과정을 거쳐 현재 기재부의 막판 심의 단계에 와 있으며, 정부는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초경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17회 전북교육정책 포럼' 13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최은경)가 광복 76주년을 앞두고 학교 내 역사 바로 세우기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를 주제로 한 '제17회 전북교육정책 포럼'을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책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6개월여 간 진행한 전북지역 학교의 일제 잔재 현황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동안 초·중등교사 6인, 정책연구소 파견교사 2인, 담당 연구사 등으로 T/F를 꾸려 도내 초·중·고교의 친일 인물·교과·교표·교목·교화·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석물 및 건축물, 학교문화 및 용어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포럼은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각 영역별 일제 잔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일제 잔재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

다. 발표자로는 △중정초 권민지 교사 △일광여중 권익산 교사 △전주영생고 권혜수 교사 △익산가온초 라민아 교사 △전주송복초 문선빈 교사 △부안고 손형태 교사 △전주성심여고 오경택 교사 △완산고 채창수 수석교사가 참여한다.

이어 전북대 윤상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및 청중이 함께 참여하고, 질의응답하는 자유토론도 마련된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최은경 소장은 "일제 잔재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여 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포럼 당일 전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를 진행한다.

김승일/기자



무주군, 한류의 원조 설천 태권도시 만드는 데 역점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통한 태권도시 활력 강조

뽕뜰 뭉쳐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역량강화에 총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합심해 지원하겠다"라며 "설천면이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꼭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이 공모 신청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정 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태권도 상징조형물이 들어서는 태권로드 조성과 남대천에 포켓텃밭과 데크로드, 태양광 가로등을 조성하는 남대천 눈꽃길 정비 등으로 설천면이 명실공히 태권도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총사업비 19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 원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설천면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설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태권도의 배후도시로서 입지 강화와 함께 중심 상권 거점으로 조성되면서 방문객 유입 등으로 상권 활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정읍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개 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 펼쳐



정읍시는 개 물림 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정읍 전변 산책로 일원에서 '개 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필수! 집중 홍보

캠페인에서는 정읍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위법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강화된 처벌내용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의무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사항 준수와 개 물림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팻티켓)의 중요성도 함께 홍보했다.

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동물보호팀을 신설, 다양한 반려동물 민원 처

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추후에는 유기견 포획 전담 요원을 충원하고 대형견·중형견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 물림 사고로 이어지는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1.7.19~9.30)을 운영하고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광주광역시 문인 북구청장 '인종차별·혐오 반대' 리브투게더 챌린지 참여

광주시 문인 북구청장이 지난 9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캠페인 리브투게더(LiveTogether)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브투게더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43만 북구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북구는 소외계층을 위한 한

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성금 기탁 및 사진전 등 지역 내 외국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 차별 받지 않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인 북구청장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임택 동구청장을 지명했다.

김덕윤/기자



남원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 확립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농막·성토·태양광 시설 등" 조사

무주군이 10일 설천면을 도시재생을 통한 청정지역,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발표 평가에는 이종현 농촌활력과장을 비롯해 조영자 지역재생팀장,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이 참석했다.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한류의 원조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를 테마로 한 태권도시로서 청정지역, 관광문화로 행복한 설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낙후된 삼도봉장터를 리모델링 및 복합화하고, 각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롯한 태권 스테이션 조성, 남대천 눈꽃길 조성,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민·관이 뽕뜰뭉쳐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역량강화에 총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합심해 지원하겠다"라며 "설천면이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꼭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이 공모 신청한 설천면 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정 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태권도 상징조형물이 들어서는 태권로드 조성과 남대천에 포켓텃밭과 데크로드, 태양광 가로등을 조성하는 남대천 눈꽃길 정비 등으로 설천면이 명실공히 태권도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총사업비 19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 원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설천면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설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태권도의 배후도시로서 입지 강화와 함께 중심 상권 거점으로 조성되면서 방문객 유입 등으로 상권 활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 “코로나 확산 차단... 선제 조치 중요”

광양시 대응 상황 점검... 타지역 접촉 11명 발생, 추가 감염 없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광양시 코로나19 상황을 방문해 “타지역 확진자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7일 광양 물놀이 시설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남도내 확진자의 50% 이상은 타지역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돼 방역의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광양에서 발생한 11명의 확진자 역시 타지역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된 사례다.

광양시는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시설 이용자 92명 전원을 즉시 이동 중지명령하고, 관련 접촉자를 대상으로 즉시 진단검사 받도록 했다. 광양시의 발 빠른 선제 대응으로



92명중 광양 외 지역 거주자 43명(순전 30명, 여수 4명, 광주 7명, 마산 22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천65명을 신속히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받았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전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가족간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며 “자가격리자를 철저한 관리하고, 역학조사 시 한 사람이라도 놓치게 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세밀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가 역학조사, 폐쇄조치, 문자발송 등 매뉴얼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잘 조치했다”며 “지역내 추

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이같이 방역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4차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 요양병원에서 38명 집단감염 중 34명이 돌파감염되는 등 연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두세 차례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확진자가 다시 나오거나, 접촉완료자의 돌파감염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위험시설인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휴가철 밀접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계속입구 등에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내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성과 보인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공동체 정신 실현, 활기 높여

구례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 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추진단장인 이광동 부군수를 중심으로 사업이 완료된 4개 마을과 진행 중인 2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금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은 올해 1년 차 사업으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추진, 사후관리까지 지역 주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공동체 실현 사업이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를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이에 따라 군은 8개 읍면의 50개 사업을 전남도에 신청하여 45개 사업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집중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4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도의 정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는 적절한 피드백을 하여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추진 중인 마을은 주민들 동기부여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완료된 마을 중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대표적인 마을 사업지로는 ‘구례읍 신촌마을 벽화그리기

와 독자마을 화단꾸미기’, ‘마산면 광평마을 담장도색 및 문패달기’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마을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꾸미기의 방향성을 잡고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입구에 대표적인 벽화를 그리거나 노후되어 볼품 없는 담장을 페인트칠하여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를 바꿔나가기도 하였다. 더불어, 3개년 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을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연계된 경관조성을 실현하고 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해 온 신촌마을 AI장은 “사업이 추진되기전에는 마을이 정비되지 않고 미관을 해치는 모습이었다”며,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마을 주민이 힘써 환경을 개선하고 글, 그림 등 순수 재능기부를 하여 깨끗하고 활기있는 마을로 변신했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광동 부군수는 “당초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율성이 높고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도를 대할 수 있었는데 으뜸마을 사업이 상황에 맞춰 이루어져 전남도와 군이 추구하는 자율, 협력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남도가 1개마을에 3백만원의 지원하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군 자체예산을 마을당 1백만원씩 추가 투입하여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성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남출, 최상홍/기자

해남군 “코로나 지역 확산 막아라” 폭염 속 구슬땀

전남도내 코로나19 확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7일 해남군 선별진료소 등을 현장점검하고, 폭염 속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타지역 확진자가 관내에 다녀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남군 관내 접촉자도 6일 하루만 80명이 발생하는 등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1:1 전담 공무원 지정과 식품 및 격리 키트를 직접 가정을 방문 배송하는 등 철저한 접촉자 관리로 감염병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등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강화로 일주일간 900명 가까운 인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폭염으로

오후 2~4시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남군은 주민편의와 코로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이관된 주민들을 신속하게 격리조치하기 위해 늦은밤까지 연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남군은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 확산에도 지난 7월 6일 이후 코로나 발생이 한건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인구 1만명당 발생률이 3.7명(전남11.6명)을 기록,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이 코로나 안전지대를 지켜올 수 있었던 데는 밤낮없이 방역활동에 임해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다”며 “폭염에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 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용/기자

“힘내라 함평관광”... ‘범 내려온다’ 패러디 영상 주목

자동차 극장 등 주요 관광지 홍보... 9일 공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9일 “최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춤 동작으로 화제가 됐던 유튜브 영상인 ‘범 내려온다’를 축제엑스포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패러디 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인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판소리가락에 맞춰 독창적인 안무를 선보여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패러디한 영상인 ‘끝! 끝! 끝! 관광 범 내려온다-함평’은 함평엑스포공원을 배경으로 장미공원, 다육식물관, 자동차극장 등 함평의 숨겨진 관광 명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노래에 맞추어 곳곳의 공간을 소개한다.



영상 제작에는 군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나산실용예술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출연부터 영상편집까지 제작 전반에 걸쳐 힘을 보탰다.

축제엑스포사업소 김중환 주무관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군청 홍보에서 벗어나 유쾌한 모습으로 함평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영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보영상은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함평군’에 9일 공개됐다.

조기석/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길

황금강이 흐르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물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숲

한국의 자연,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맛

사뽕떡이 어찌 반가운 레시피,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영양,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하얀 오솔길, 800년 전 영양읍에서 시작되는 길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복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영동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로 농촌 코로나 위기 극복

유성구, 2021년 구민 아이디어 집중 공모

복숭아, 와인, 샤인머스켓 등 영동의 건강먹거리 출동. 11일 첫방

'상상나라를 유성에 펼쳐요!' 8. 12. ~ 9. 10.까지 구민 아이디어 공모



충북 영동군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들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며, 코로나19로 가중된 농촌의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달 11일 복숭아 판매를 시작으로 총3회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을 뜻하는 라이브와 상업을 의미하는 커머스가 결합한 단어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마케

팅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미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 이러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해, 판로 개척 방안으로 라

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영동의 청정자연과 농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먹거리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일 오전 10시 네이버 쇼핑라이브 첫 방송으로 영동 복숭아가 선보인다.

영동의 복숭아는 과일의 고장 여름의 대표 여름과일로, 달콤한 향, 우수한 맛과 품질로 전국 소비자들의 여름을 채우고 있는 건강먹거리이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시나브로, 여포, 컨츄리, 산막, 금용 등 이쁜난 와이너리 농가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와인이 선보인다.

와인1번지라 불리는 영동군은 천혜 자연이 빛나는 고품질 포도를 원료로 와이너리 저마다의 독특한 제조법을 활용해 풍미 가득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마지막 25일에는 껌질째 먹는 청포도로 알려진 고향도의 영동샤인머스켓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영동군이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며 농가 보급과 기술지도에 힘쓴 결과, 지금은 최고의 식감과 향, 당도를 자랑하며 영동의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동의 우수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또한, 라이브방송 중 구매인증댓글을 남긴 시청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영동포도즙(30포) 증정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영동을 알리는 한편, 전국 소비자 동향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방식의 소통채널로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산물 구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IP TV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영동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천안시, 동면 저수지 긴급 수혈로 '농민 시름 해소'

한국농어촌공사 협조로 농업용수 공급, 동면 지역 가뭄 피해 예방

천안시는 '동면 화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통해 오창저수지에서 동면 6개 저수지(송정, 차여, 상장, 초봉, 대동, 덕성)까지 지난 5월 설치한 양수장을 긴급히 가동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면 6개 저수지 저수율은 올해 봄 잦은 강우로 모내기철 영농활동 후에도 80% 이상을 유지했으나 장마철 적은 강우량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되자 30% 이하로 떨어져, 양수장 가동이 시급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3일 오창저수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해 동면 지역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이 절실

함을 전달했다.

이후 농업용수 사용 협조를 받아 용수 공급 가능한 6개 저수지중 저수율이 가장 낮은 초봉저수지(동면 죽계리)를 시작으로 신속히 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했던 동면지역 농민들은 저수지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름을 덜었다.

박상돈 시장은 "동면지역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용수 사용에 협조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영농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전 유성구는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30일간 상상나라가 펼쳐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 문화, 육아, 주거환경, 청년 및 노인 일자리, 돌봄(아동·장애인·노인),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성구민(유성구 소재 직장인·학생 가능)이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참여 - 구민제안 신청, 모바일 앱 '유성이' - 참여마당 - 구민제안 신청,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일반제안 신청, '구민제안서' 작성·제출 - 이메일(memory0808@korea.kr), 방문접수 등이다. 심사는 1~2차 서류 심사 및 10월 중 결과 발표이다. 상금은 금상(1명) 50만원, 은상(1명) 30만원, 동상(2명) 각 20만원, 장려상(3명) 각 10만원, 노력상(5명)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다. 문의는 유성구 기획실 ☎ 042)611-2047(구민제안 담당자)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금상 1명(50만원), 은상 1명(30만원), 동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 노력상 5명(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0월 중에 수여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발굴·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은 일상 속에서 작은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와 유성이 앱, 전자우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방문과 팩스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성구 기획실 구민제안 담당자로 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춘천시, 1억그루 나무심기 캐릭터 시안 '봄내림 프렌즈' 확정

영월군 자원봉사단체, 백신접종 행정인력 자원봉사 동참



영월군 자원봉사단체에서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신접종 행정인력 자원봉사에 동참하였다.

8월 6일 백신접종 행정인력에 철쭉회(회장 이동숙), 영월직접자봉사회(회장 조성희)가 백신접종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했다.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조를 나누어 의료 인력을 도와주는 접종안내, 체온확인, 거리두기확인 등 업무진반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백신접종 주민들의 이상 유무를 살피며 예방접종 후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예방접

종을 도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주민 들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홍보캠페인, 사랑의 김장나누기, 방역봉사, 반찬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현장에 투입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월군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부식품 나눔의 날 운영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 전달, 일상 속 나눔문화 실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9일 분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등에서 일상 속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기부식품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부식품 나눔의 날'은 구청 직원들과 지역주민이 가정의 식료품,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날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한 크라운제과 대전공장(공장장 이정현), 롯데제과 대전공장(공장장 이석렬)이 자사생산 과자를 기탁해 그 의미가 더해졌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와 폭염이 계속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들은 2동에 위치한 '대전행복나눔푸드마켓3호점(점장 김익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푸드마켓은 원하는 물품을 이용(월 1회, 무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정화기자



춘천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50 1억그루 나무심기의 캐릭터 시안이 확정됐다.

"봄이, 수피, 남구와 함께 1억그루 나무 심어요"

그동안 시는 1억그루 나무심기를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이해시키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개발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 용역에 착공했으며, 시민선호도 조사와 도시숲협의회, 성별영향평가, 강원디자인진흥원 자문 등 숙의를 거쳐 시안을 정했다.

당초 '봄이' '수피' '남구' 중 하나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속의 결과 세 가지 캐릭터를 모두 합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1억 그루 나무심기 캐릭터는 '봄내림 프렌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봄이'는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새싹으로, 숲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숲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숲을 지키는 용감한 숲의 친구인 '수피'는 미세먼지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 가슴의 마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출동하며 숲이 안전되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논다.

마지막으로 '남구'는 나무의 강원도 방언인 나무구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숲을 가꾸는 걸 좋아하고 즐거운 놀이로 만들 줄 아는 창의적인 친구다.

봄내림 프렌즈는 이 세 가지 캐릭터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도시숲을 가꾸고(봄이-좌), 지키고(수피-중앙), 즐기는(남구) 귀여운 친구들로 성격도 제각각,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이지만, 각자 봄내림을 자신의 방식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시안 확정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상표법에 따른 업무표장 출원을 할 예정이며 이후 각종 홍보에 캐릭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최재은기자

양주시, 2021년 2분기 친절공무원 3명 선발



양주시는 지난 6일 신속하고 친절 한 서비스로 명품행정을 빛낸 2021년 2분기 친절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친절공무원은 차량관리과 신용남 주무관, 기업경제과 김지희 주무관, 수도과 이주환 주무관이다.

신용남 주무관은 주정차 민원 관련 이의신청 상담 시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지희 주무관은 지역화폐 사용 관련 문의 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친절행정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주환 주무관은 바쁜 와중에도 민원인 가정의 정결하고 안전한 수

도물 공급을 위해 신속한 수도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부시장실에서 최종 선정된 친절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특별휴가 2일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김종석 부시장은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감동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는 조직 내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 홈페이지, 정찬엽서 등 시민 추천 글이 접수된 직원 가운데 부시장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친절공무원을 분기별 3명씩 선발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하남시 '하남이 · 방울이', 2021 우리동네캐릭터대상 수상 '도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101개 캐릭터와 경쟁, 오는 17일까지 예선 투표

하남시 대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가 전국 최고의 공공 캐릭터를 뽑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수상에 도전한다.

하남시는 하남이·방울이가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예선에 참가해 전국 지자체 60개와 공공기관 41개 등 총 101개 캐릭터와 경쟁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공공 캐릭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콘테스트로, 2018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선 투표가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50%)와 전문가 심사(50%)를 거쳐 지자체 10개, 공공기관 10개 캐릭터가 20일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하남이·방울이는 첫 출전한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전국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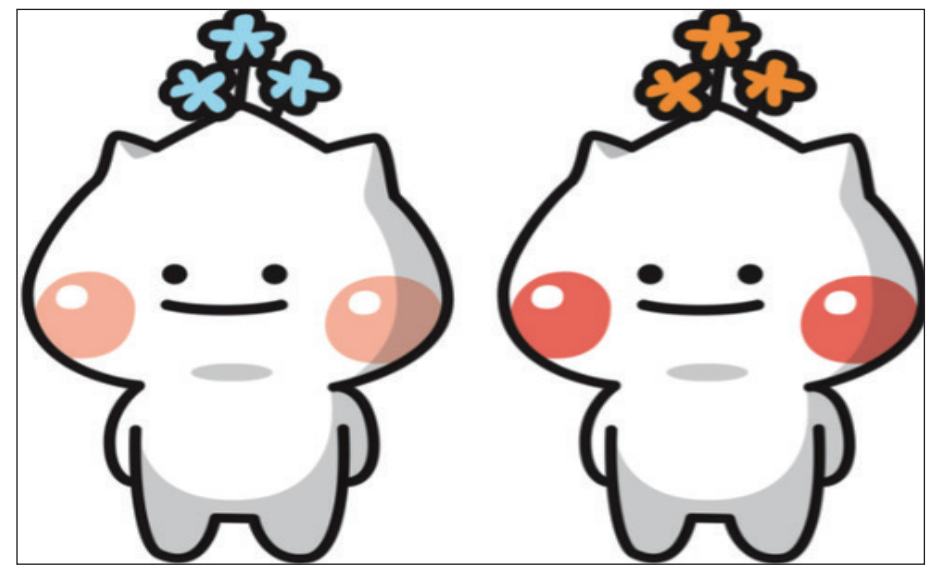
개 캐릭터 중 예선투표 6위로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차지했고, 지난해 열린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도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의 예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투표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투표는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본인인증을 거친 후 1인 1회 참여할 수 있다. 지역·공공 부문별로 2개씩 최대 4개 캐릭터까지 투표 가능하다.

투표 후 네이버폼으로 투표 참여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세 번째로 출전하는 하남이와 방울이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시는 하남이·방울이를 시정 홍보 오텍 브랜드 이모티콘 5만 명분이에 활용해 대표 캐릭터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하남이·방울이가 담긴 카카

오텍 브랜드 이모티콘 5만 명분이에 활용해 대표 캐릭터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하남이·방울이가 담긴 카카

박강호/기자

옥천군, '청산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청산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청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

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청산면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것을 극복하여, 번영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살기좋은 청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산지역살리기”를 위해 구성되었다.

총3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청산면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참여 하였고 행정, 재정, 교육, 일자리 총 4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산 초중고교장과 농업작목반 및 기업인 등이 분과에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청산지역살리기는 “지역경제살리기”와 “학교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복합문화타운 건립(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 건립) ▲관광지 조성(벚꽃길, 출렁다리, 역사테마관광) 및 축제(생선국수 축제) 활성화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청산초중학교 전입가정 임대주택제공 ▲전일 학부모 일자리알선 ▲해외연수 및 장학금수여 ▲특성화학교 프로그램운영(자연치유 아토피교실)을 추진한다.

이날, 이은승 추진위원장은 “청산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단체장, 학교, 지자체 등이 뭉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일학생 장학금 지급과 학부모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오고싶고 살고싶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 수상



강진군은 지난 5일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강진군의 '프리미엄 호평'이 최우수상과 함께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상금은 쌀 고급화를 위해 품질개선,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선정된 브랜드 쌀은 대형유통업체 공동마케팅을 지원 받는다.

'프리미엄 호평'은 최신 정미시설에서 피해됨, 유색립, 싸라기, 이물질을 제거한 96%이상 무결점 완전미

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쫄쫄한 식감과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또, 정부보급종 수준의 순도를 보유한 전남농업기술원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사용하며, 강진군농협 통합RPC에서 수매 건조 후 저온저장창고에 별도 보관을 통해 최상의 미질을 유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미질이 좋고, 도복과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새청무벼를 원료로 '프리미엄 호평'과 '탑진강 찰진쌀 새청무'를 생산해 강진군 대표 브랜드쌀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40kg 가마당 2,000원의 생산장려금 지급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와 품종 단일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전체의 환경 속에 과학과 정성을 더한 '프리미엄 호평'이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쌀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간다는 무게로운 사명감을 갖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2021년 지역문화대상' 수상 지자체 2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역문화대상' 수상 지자체로 ▲ 문화자치부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 문화포용 부문에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 및 가치 확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지역문화대상'을 신설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12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

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원 지자체들의 지역문화 정책목표 부합성, 사업추진여건 조성 여부, 사업 독창성 및 성과, 성과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특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2021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10. 16.(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 충남 홍성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군위군 효령면,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군위군 효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시형, 이화익)는 지난 6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관내의 취약계층 32가구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은 경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무더위에 취약한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를 지원해 건강 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여름나기 물품은 손선풍기, 여름이불, 영양제, 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폭염과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박시형 공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여름, 작은 정성이지만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봉화의 아들 최우진, 봉화군 홍보대사 위촉

고향 봉화 홍보 앞장선다!

경북 봉화군이 가수 최우진을 봉화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8월 6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임태항 봉화군수, 최창섭 (재)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안중학 기획감사실장, 김규하 문화관광체육과장 등이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를 기념했다.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인 최우진은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에서 최종 6위에 이름을 올리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실력파 가수로, 봉화군 봉화음 출신으로 알려졌다.

위촉장을 받은 최우진은 앞으로 2년 간 봉화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며,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널리 알리고 군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은 최우진이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홍보와 군민 소통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진은 “고향인 봉화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봉화군을 열심히 알리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며 봉화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한반식/기자

영월군, 14기 영월군청소년참여위원회 강원도 청소년 정책 제언대회 1위 수상



영월군은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도 내 거주 만 9세~24세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강원도 청소년을 위한 실현 가능 정책을 제언하는 대회로서 7월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팀이 8월 7일 본선대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대회에 제 14기 영월군청소년

참여위원회 A팀(강원도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정책), B팀(세대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세대공감교실 운영 정책) 총 2개 팀이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1위를 수상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성아영 위원장은 '평소 느끼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책으로 제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예술의전당, 제작연극 '햄릿' 무대 올린다

8. 10~15 평일 19:30 토·일 15:0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대전예술의전당은 오는 10~15일 앙상블홀에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정수 '햄릿'을 박근형 연출의 무대로 올린다.

공연은 6일간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에 진행되며 티켓은 R석 3만 원, S석 2만 원으로 8세 이상이면 입장 가능하다.

특히 첫 공연에는 배리어프리 공연(자막상영)이, 14일에는 공연 종료 후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문의 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대전예술의전당이 2007년 [맥베스]를 시작으로 [오셀로], [리어왕]을 거쳐 완성하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마지막 작품이다.

'당대뿐 아니라 만세(萬世)에 통용되는 작가'라는 영적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4대 비극 중 가장 먼저 쓰였으며 작품성이 뛰어나다 평가받는 [햄릿]은 오늘날 가장 많이 무대로 올려지는 작품 중 하나이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명대사로 잘 알려진 아버지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사랑과 복수의 갈림길에 고뇌하는 주인공을 통해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삶의 불균형을 세밀하게 다룬다.

이번 작품은 극단 골목길 대표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출과 교수로 대산문학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BEST 3, 동아연극상 수상 등 한 국연극을 이끌어온 박근형 연출이

2013년 제작연극 '베니스의 상인' 이후 다시 한번 대전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작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연극은 흘러가는 세상의 정중앙을 노려보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철학으로 당대 정치적, 시대적 고민을 담아 변주한 [햄릿]을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려 동시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박근형 연출은 이번 2021년 [햄릿]에서 '오페리아'의

변화에 주목한다. 원작에서 수동적으로 인물로만 묘사된 그녀를 좀 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낼 예정이다.

함께하는 17명의 배우는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대전 출신의, 대전 연극계에서 활약하는 중견 및 신인 배우들로, 특히 주인공 '햄릿'역의 김영필은 연극 외 TV, 영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배우로 2008년 제작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후 오랜만에 대전 무대에 선다. '연극은 배우의 힘'을 강조했다던 박근형 연출은 이번 작품이 '대전 배우의 힘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높였다.

'연극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거울'이라는 극 중 대사처럼, '극 중 햄릿이 배우들을 단순한 광대가 아니라 예술과 혁명의 동지로 만났듯이, 동시대의 의미와 가치가 담긴 연극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유하는 힘, 그것이 연극의 힘이다.'라는 박근형 연출이 2021 선보이는 제작연극 '햄릿', 400년을 관통한 새로운 질문과 통찰로 찾아간다.

고정화기자

금정문화회관, 8~9월 기획공연 쏟아진다

부산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 8-9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기획공연인 연극 '고모령에 달 지고', 퓨전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3',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노자와 베토벤', 장사익과 김영일이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판'이 금정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더불어 상설공연 '금정수요음악회'가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한다.

-부산 대표 연극 '고모령에 달 지고'

부산 대표 연극 '고모령에 달 지고'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먹고 살기 위해 술집을 운영하는 '문여사'와 가짜 트럼펫 연주자 '땡초'의 힘든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52년 동안 부산 연극 지킴이였던 '공연예술 전위'의 전성환 연극 연출가의 유작으로, 반세기 부산 연극사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깊이를 통찰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다. >8월 13-15일, (총 19:30, 토 15:00-18:00, 일 15:00(총 4회))은빛샘홀 >전석 2만 원, 13세 이상 관람가, 금정문화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서 예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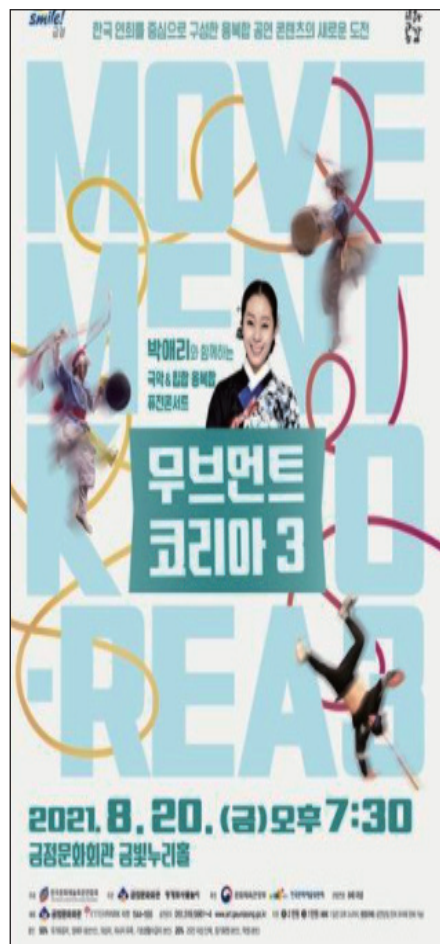
-국악&힙합 융복합 퓨전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 3'

국악인 박애리와 함께하는 퓨전 콘서트 '무브먼트 코리아3'가 오는 20일 금정문화회관을 찾는다. 공연은 공개도사물놀이 예술단을 중심으로 판소리, 전통무용, 비보이, 비트박스, DJ 등이 모여 한국 젊은 예술가들만의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열정을 표현한다. '전통문화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국악 연희의 원형과 변형을 떠나들며 관객들과 신명의 에너지를 나누며 우리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 >8월 20일 오후 7시 30분(총1회)/금빛누리홀 >R석 2만 원·S석 1만 원, 금정문화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서 예매 가능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

바쁜 현대사회에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가 금정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부제 아래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실전 철학자 최진석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인생철학을 나눈다. 더불어 맨해튼 음악대학 최준 바이올린 박사 출신 김주영이 협연하며 공연의 깊이를 더한다. >9월 2일 오후 7시 30분(총 1회)/은빛샘홀 >R석 4만 원·S석 3만 원·A석 2만 원, 금정문화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서 예매 가능

-장사익&김영일 '희망콘서트 판' 금정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풍성한 선율로 위로하고자 우리 시대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민요 장인 김영일이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 '판'을 기획했다. 이번 무대는 지휘자 방성호가 이끄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구성되며 색소포니스트 김성훈이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9월 9일 오후 7시 30분(총 1회)/금빛누리홀 >VIP석 6만 원·R석 5만 원·S석 4만 원·A석 3만 원, 금정문화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서 예매 가능

-피아노, 플루트 '금정수요음악회' 금정문화회관의 대표 상설 음악프로그램인 '금정수요음악회'가 내달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은빛샘홀에서 열린다. 오는 11일 김미성 피아노 독주회를 시작으로, 18일 플루트 콰르텟 '클랑'의 정기연주회, 25일 홍상희 피아노 독주회 등으로 채워진다. >전석 1만 원, 문의 051-519-5664

한편 금정문화회관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공연장 입장 시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입력, 손 소독 등을 실시하며 '뜨임뜨임 좌석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공연 개최 여부 및 진행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더위로 지친 구민들이 풍성한 공연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남동소래아트홀 10주년 기념 십시일반 페스티벌

9월 1일 '고상지 반도네온 콘서트-EL GRAN ASTOR PIAZZOLLA' 공연



인천 남동소래아트홀이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매달 공연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십시일반 페스티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9월의 아티스트는 반도네온리스트 고상지를 선정하고, 아스토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고상지 반도네온 콘서트-EL GRAN ASTOR PIAZZOLLA' 공연을 9월 1일 오후 7시 30분에 소래극장에서 개최한다.

고상지는 2005년 KAIST 중퇴 후 일본에서 고마츠 료타에게 반도네온과 탱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9년 아르헨티나 에밀리오 발카세 오케스트라 학교 유학 후 유희열의 스케치북, TV 예술무대,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판타스틱 듀오 등 여러 TV 방송과 콘서트, 페스티벌에서 연주자와 편곡자로 활발하게 활동, 김동률, 이적, 윤상, 정재형 등 장르를 넘나들며 수많은 뮤지션들과 협업,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 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누에보 탱고 장르를 개척하여 탱고의 전설로 불리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곡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반도네온 고상지, 피아노 이현진, 바이올린 윤종수, 비올라 박용은, 콘트라베이스 김유성, 어쿠스틱기타&아코디언 이자원이 함께 참여하여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현정곡 '르그랑 탱고(Le Grand Tango)',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살린 '데카리시모(Decarissimo)', '영화 여인의 향기 OST로 유명한진 '포르 우나 Cabeza)' 등 다수의 곡을 연주한다.

공연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와 엔티켓을 통해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전석 15,000원(복지 50%, 학생 40%, 유료회원 30%, 4인 이상 20%, 남동구민 10% 할인)으로 만 7세 이상부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동소래아트홀은 좌석 제한 및 락이 없어 가기, 발열 검사, QR전자출입 명부 작성, 공연 전·후 소독 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십시일반 페스티벌' 10월의 아티스트는 천재소리꾼 이자원으로 10월 16일 판소리 '노인과 바다'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양천구는 코로나 19로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지역주민과 직장인의 건강을 위한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매월 다양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8월의 소소한 걷기 챌린지는 '살랑살랑 밤마실'을 주제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걷고 싶은 길 7코스'와 판내 공연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저녁 시간대에 진행한다. 참여자는 챌린지 기간 중 연속 7일 동안 누적 걸을 수 60,000보 이상을 달성하면 된다.

'걷고 싶은 길 7코스'는 장·단거리 코스를 신월·신정·목동 권역과 산지·하천형으로 구분하여 관내 명소 위주로 구성되어있으며 카카오톡 '소소한 걷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는 해당 구간에 접근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관내 가까운 공원에서 챌린지 목표 걸을 수를 달성한 경우에도 그 실적을 인정한다.

걷기 챌린지 참여방법은 ▲'위크온' 앱 설치 후 '소소한 걷기 in seoul' 커뮤니티 양천구에 가입하여 ▲챌린지 미션(공원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기)을 수행하고 ▲카카오톡 채널 '소소한 걷기' 친구 추가하여 채팅창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며, QR코드를 활용한 설문 응답자에게도 신체 활동 관련 물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운동방식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 구민을 위해 매일 재밌는 주제로 걷기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직장인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남원시,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시작

여름철 무더위 식혀줄 풍성한 공연 준비 완료!

여름철 무더위를 국악으로 식혀줄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원시는 남원시립국악단의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이 지난 5월~7월에 이어 10월~12월까지 저녁 8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이 공연은 관객 간 거리두기, 공연장 주변 사전 방역 등 코로나 19 대응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며, '소리여행'에서는 기악합주, 예기무, 살풀이, 임춘소고, 민요, 퓨전국악(실내악) 등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입장인원은 카카오톡채널 '남원시립국악단'을 통한 사전예약자 50명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소리여행에서는 지난 4월 장단한 남

원시립어린이국악단의 귀엽고 깜찍한 공연도 펼쳐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남원을 찾아주는 관광객과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남원시립국악단의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을 마련했다"면서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둘레길에서 남원을 즐기시고, 밤에는 여름밤의 아름다운 국악공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은 올해로 2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름 휴가철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수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볼거리 제공을 해왔다.

김승일기자



울릉군, 아랑고고장구교육 개강

울릉군, 농촌여성 대상 활력 넘치는 아랑고고장구교육 실시

울릉군은 지역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주2회(금요일, 토요일) '아랑고고장구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 결과 30여명의 지역여성이 수강신청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고장구는 일반적인 민요장구나 사물놀이장구의 리듬과는 달리 선조들이 흥에 겨워 젓가락을 두드리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장단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여 치는 장구를 말한다.

전통가락을 대중가요와 접목해 문화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아랑고고장구는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팡수 등을 국악기인 장구장단에 맞춰 안무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4분의 4박자 곡이면 흘러간 노래나 최신가요나 모두 흥겹게



즐길 수 있는데다 운동량이 많아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이 지역여성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교육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강원도, 극동 블라디보스톡 중심에 강원장터개설

코로나 19 위기에도 러시아에 '강원이 뜬다.'

강원도(러시아분부)는 8.6(금)~10.9(토), 매주 금요일, 토요일 12:00~20:00 러시아 극동의 수도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지에 있는 굽 백화점 야외정원에서 '강원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장터가 개설되는 곳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기업가 등을 위한 주말 스트리트 마켓이 운영중이며,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강원장터에서는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①떡거리, ②즐길거리, ③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격적 강원 토탈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①(떡거리) 현재 러시아의 한인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원산출식품의 현장 판매 및 시식회와 조리방법을 알려주게 되며, 9월에는 추가로 강원정식식품관을 개설하여 30여개의 제품을 수입할 계획으로 홍보 할 수 있는 품목을 더욱 다양화 할 예정이다.

②(즐길거리) 도 마스코트 범이 & 곰이와 함께 하는 포토타임 및 코로

나-19를 잘 극복하고 시원하게 훨훨 날려버리자는 의미로 희망의 물풍선 터뜨리기 존을 운영한다.

③(볼거리)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동해-블라디보스톡 국제카펠리 항로, 속초-블라디보스톡 크루즈 항로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게 되며, 현지 공영방송국 OTB에서도 매일 저녁 관광지와 장터개설에 대한 홍보 영상을 10월까지 송출하게 된다.

장터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 10.9 일에는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에서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주관하는 제2회 극동 '한국의 날' 행사 개최 예정으로, 강원장터는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하여 '한국의 날' 참가를 통해 마지막을 장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도에서는 러시아 시장에 도내 수출식품의 안정적 판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

현지 한인마트를 이용 2018년부터

오프라인 삼인삼을 개설 운영하며,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스타푸드들을 발굴하여 2020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물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오프라인 삼인삼 마케팅과 병행하여 러시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강원도 식품관 개설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수출시장은 문화·국제교류 등을 통한 '강원'의 브랜드 확산과 동반 성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강원장터는 도의 교류지역인 극동지역의 행정수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시내 중심에서 매주 우리도의 수출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되었다는 점과 도내에서 수출상품의 생산, 운송, 현지 판매까지 강원도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9월부터는 강원장터와 더불어 사할린 강원정적



식품관(삼인삼) 개설과 10월 러시아 온·오프 강원부터 판촉전 등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공세적 릴레이 마케팅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강원도 수출 25억 달성에 러시아 지역의 특새시장이 큰 힘이 되어 수출 주력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수출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인천시, '인천형 청년정책' 확대·발굴총력

청년정책 발굴 TF 구성, 청년 일자리·주거안정 등 특별대책 마련 나서

인천광역시청은 인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주거안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일환으로 8조원 규모의 청년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인천형 청년정책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이번 TF는 단장인 행정부시장과 부단장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 대표와 전문가 및 사업부서로 구성되며, 인천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형 청년정책'의 핵심내용은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년에게 날개를(wings to the youth)'이란 슬로건 하에 취·창업, 주거·생활, 교육, 문화·여가 분야에서 인천만의 대표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TF 구성은 인천형 청

년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 및 신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청년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 등을 대폭 확대해 우수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지역 청년예술가를 양성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해 역사와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에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소통 참여기구 확대와 청년정책 플랫폼 정비 등 내실 있는 인천 청년정책의 비전을 담을 계획이다.

박 시장은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용성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TF 구성을 통해 인천만의 핵심 정책을 발굴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청년 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양기자

광명시,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

상으로 기업제품에 대한 소셜 비즈니스 아이템 검증과 온라인 홍보·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클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사와 진행할 예정이며 ▲클라우드펀딩 관련 교육, ▲프로젝트 설계 1:1 컨설팅 ▲펀딩 랜딩 페이지 디자인, ▲수수료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펀딩 참여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은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광명시청 고시공고란 또는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25일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경기경제청, ESG·RE100 관련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경기경제청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ESG, RE100 기업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경기도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발맞춰 경기경제자유구역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은 평택시 원정지구~만호지구~포승지구~평택항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평택항의 에너지전환 및 수소기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달 26일 20개 민·관 단체와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선포 및 투자·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지난해 8월 국제적 선도기업인 현대모비스를 유치했다. 지난 6월에는 전기차 소재 및 친환경 부품 업체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제조업체인 영진금속공업,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이화산업 등 4개 업체와 44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포승(BIX)지구에 유치한 한 글로벌 물류기업은 RE100



을 목표로 친환경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 플랫폼을 비롯해 태양광을 설치한 물류 터미널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지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협약 시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조성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RE100을 주제로 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경제청 직원들이 저탄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ESG와 RE100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주 경기경제청장은 "평택 수소도시 기반조성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포승지구에 이어 현대지기도 수소 인프라 및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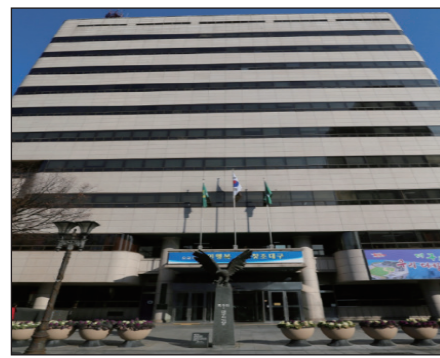
대구시,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메꾼다

긴급복지지원,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운영, 희망가족돌봄, 달구벌기다리 나눔점빵 사업 등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희망가족돌봄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및 위기가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또한 국비 1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47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현재 8,800가구에 177억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까지 17,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한 희망가족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약 7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구벌기다리나눔점빵 및 복지기



동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구시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업한 '달구벌기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현재까지 일시적 생계 위기가구 7,600가구에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달구벌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신규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

최근 5년 내 관내 사용 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 대상

광주광역시는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모집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상은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추진된다.

응모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 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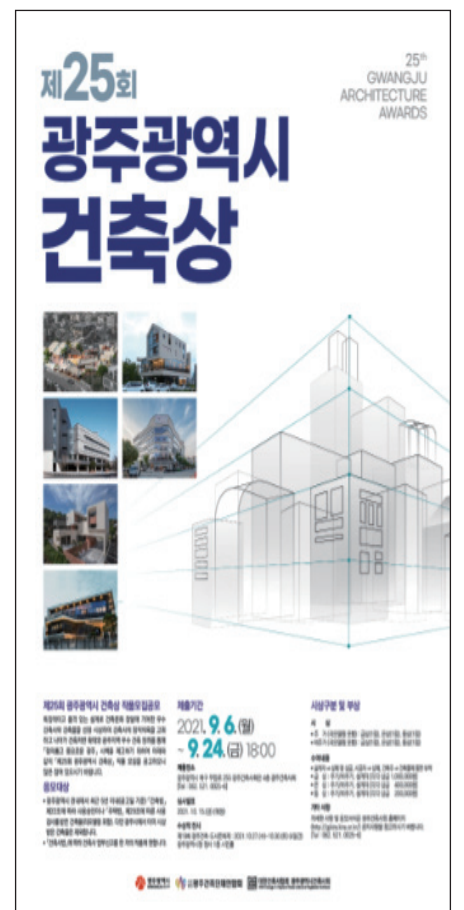
작품접수는 광주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A0 사이즈 작품 판넬과 함께 9월6일부터 24일까지 건축사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각각 금상 1작, 은상 1작, 동상 1작 등 총 6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입상한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며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동판이 전달된다.

또 입상 작품은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안길전 광주광역시건축상 운영·심사위원장은 "(㈜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는 "광주 건축상은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광



주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권위 있는 건축상이다"며 "올해도 우수한 건축작품들이 대거 발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건축상'은 지난 1989년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자본 확대 등 광주지역에서 우수 건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 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5개 건축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광주시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경찰수업, 최고 8.2%! 뜨거운 관심 입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차태현 - 진영,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으로!

‘양속’ 차태현과 진영의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0일(어제) 밤 9시 30분 방송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연출 유동만 / 극본 민정 / 제작 로고스 필름) 2화가 시청률 6.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효랑이 교관’ 유동만(차태현 분)이 강선호(진영 분)에게 오리걸음 훈련을 지시하던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 8.2%(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했다.

어제 방송된 2회에서는 날 선 대치를 벌이던 유동만과 강선호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 어디로 뻗지 모르는 전개로 모두의 시선을 고점시켰다.

앞서 강선호는 유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강희(정수정 분)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녀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해킹 현행범과 형사 신분으로 만났던 유동만을 경찰대 면접장에서 재회해 난관을 맞이했다. 조사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해킹으로 폭파시킨 강선호에게 앙심을 갖고 있던 유동만은 그에게 “넌 안 돼 인마!”라고 탈락을 선언하기도.

어제 방송에서 두 남자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유동만의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 면접을 보던 강선호는 “건장한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가 아니라,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단단한 신념을 내비쳤다. 그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다른 교수들과 달리, 유동만은 종이에 커다랗게 쓴 ‘F’를 보여



주며 유치한(?) 경고를 이어갔다. 온갖 트집을 잡는 유동만과, 이에 지지 않고 맞서는 강선호의 팽팽한 대치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다.

결국 강선호는 경찰대학교 합격에 성공했으나 둘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유동만이 정식 입학에 위한 ‘청량 교육’의 지도 교수로 나타나 악마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다. 그의 지목 하에 3차차장으로 선발된 강선호는 팀원들이 검도, 유도, 태권도, 오리걸음 등반 훈련까지 탈락하자, 리더의 역량 단련을 이어가게 됐다. “솔직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하는 강선호에게 유동만은 “자격도 없는 주제에 버티는 게 잘못이다”라고 매섭게 비수를 꽂아 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두 남자의 접점이 치열해지는 한편, 강선호의 풋풋한 짝사랑은 조금씩

을 띄우기 시작했다. 경찰대학교 면접 당일, 강선호는 정문 앞에서 오강희와 수업을 차고 체포되어가는 그녀의 어머니 오여사(김영선 분)를 발견했다. 어수선한 인파 속, 강선호는 오강희를 등 뒤로 듚직하게 가려 실례를 유발했다. 하지만 오강희가 “왜 이런 창피한 순간마다 내가 있냐고, 가!”라고 소리치자, 그는 고분고분 뒤돌아가는 허당기 가득한 소년의 모습으로 안방극장의 웃음을 터트리기도.

이윽고 경찰대학교에서 재회한 이들은 혹독한 캠퍼스 라이프 속에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강선호가 뜻대로 되지 않는 팀 훈련에 괴로워하자, 오강희는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가려진 따뜻한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그녀가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던 자치원들을 떠올리며 “그냥 너답게 해보는 건 어때? 그냥 다들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열

심히 하는 거잖아”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다. 이에 힘을 얻은 강선호는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방송 말미에는 유동만과 강선호에게 숨겨져 있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흥미진진한 전개가 그려졌다. 유동만이 형사팀 박철진(송진우 분)과 통화를 하던 중, 오랜 기간 연락하던 자신의 랜선친구가 강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그에게 강선호는 “훈련 끝나고 결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학교에 남아도 될 눈인지 아닌지”라고 선언,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렇듯 ‘경찰수업’은 우여곡절 가득한 경찰대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점시켰다. 묘하게 쿡쿡이 맞는 차태현과 진영의 티격태격 케미와, 풋풋하면서도 당찬 진영과 정수정의 로맨스는 짝 찬 꿀잼을 선사했다. 또한 통쾌한 액션과 잔내가 공존하는 경찰대 학생들의 혹독한 훈련 과정으로 새롭고 신박한 캠퍼스 물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한편 극 중 유동만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우릴 쫓던 유동만을 여기로 보내? 지금 다 죽자는 거야?”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상황.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찰대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방송이 더욱 기대된다.

KBS 2TV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은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e에서도 만날 수 있다.

최재은/기자

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첫눈이 사라졌다’

“‘노매드랜드’의 최고 경쟁작!”(Deadline)이라는 찬사와 함께 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판타지 아트버스터 ‘첫눈이 사라졌다’가 10월 개봉 확정과 함께 1차 티저 포스터를 공개한다.

‘첫눈이 사라졌다’는 영혼을 깨우는 최면술사 ‘제니아’의 등장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의 부유한 마을 전체가 들썩이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려낸 독특한 판타지 아트버스터.

지난해 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영화제 프로그램으로부터 “‘노매드랜드’의 최고 경쟁작!”(Deadline)이라는 극찬과 함께 “관객을 끌어당기는 도전적인 이야기!”(Hollywood Reporter), “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작 중 가장 독특한 영화!”(Cineuropa) “무거운 주제를 유머로 풀어내는 흥미로운 장르!”(Eye for Film) 등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언론과 평단의 압도적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상 부문 폴란드 대표작으로 출품되었으며 전 세계 유수의 9개 국제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베를린국제영화제 3관왕에 빛나는 폴란드 여성 감독 마우고시카 슈모프스카의 차기작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매 작품 독창적이고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감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폴란드 최고의 감독!”(Hollywood Reporter)이라는 평가를 함께 차세대 유럽 거장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우고시카 슈모프스카는 ‘인 더 네임 오브’, ‘바다’, ‘얼굴’ 등으로 각종 국제영화제 28개 부문 수상 & 41개 부문 노미네이트를 달성한 실력파 감독. 이에 ‘첫눈이 사라졌다’는 최근 ‘티탄’ 노매드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여성 감독들의 활약을 이어갈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월 국내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1차 티저 포스터는 문에 걸린 회백색의 크리스마스 리스 비주얼과 흘날리는 눈으로 겨울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제목과 함께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특히 이는 마을 사람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는 신비롭고도 미스터리한 매력의 주인공 ‘제니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 전개와도 연결되어 더욱 호기심을 유발한다.

한편, 포스터 하단의 ‘올해, 가장 독특한 판타지 아트버스터’라는 카피가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관객들에게 지금껏 본 적 없는 매력적이면서도 독특한 장르를 선보일 것을 암시한다.

마우고시카 슈모프스카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각본으로 탄생한 ‘첫눈이 사라졌다’는 팬데믹 시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한편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며 올가을 극장을 찾는 모두를 매혹시킬 단 하나의 판타지 아트버스터로 등극할 예정이다.

올가을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독특한 판타지 아트버스터 ‘첫눈이 사라졌다’는 10월 관객들을 만난다. 전순희/기자

‘미스트롯2’ 김태연 ‘아침마당’ 출격!

‘아버지’ 열창 예고! 국악 신동의 ‘명품 무대’ 펼쳐진다.

‘미스트롯2’ 김태연이 ‘아침마당’에서 특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김태연은 오는 11일 방송되는 KBS 1TV ‘아침마당’ 코너 ‘도전! 꿈의 무대(기획/연출 이현희)’에 출연한다. 이날 김태연은 ‘음치 바치 몸치 전국 노래자랑’ 특집에서 이성국과 함께 인순이의 ‘아버지’를 열창할 예정이다. 2012년생으로 올해 만 9세인 김태연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 소리와 민요를 즐겨 부르며 다양한 경연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판소리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

히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연은 ‘아침마당’에서도 국악 신동다운 실력과 특유의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연과 함께 ‘아침마당’에서 듀엣 무대를 펼칠 이성국은 ‘도전! 꿈의 무대’가 낳은 스타로, 지난 2018년 애절한 사연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5등을 기록해 주목받은 가수다. 이후 앨범 ‘Dream’, ‘우화(雨花)’ 등을 발매했으며 최근 MBN ‘보이스킹’

에 출연해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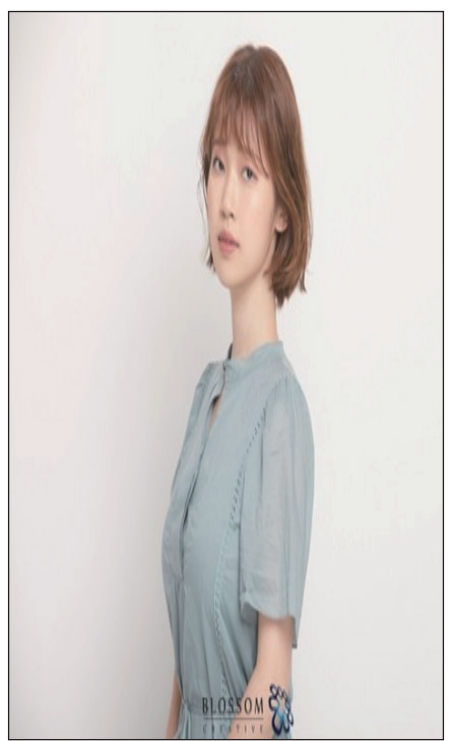
김태연과 이성국이 지난해 12월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해 ‘목포의 눈물’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명품 무대를 만들어냈던 만큼, 이번에도 완성도 높은 무대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미스트롯2’ 최연소 결승 진출자 김태연은 ‘아기 호랑이’ 등의 애칭을 얻으며 전 연령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또 최근 ‘내 딸 하자’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유주/기자



‘벡델데이 2021’, 김초엽 작가와 ‘벡델 클래스’... 9월 4일



‘벡델데이 2021’이 김초엽 작가와의 특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김초엽 작가와의 ‘벡델 클래스’를 마련했다. 작품마다 SF장르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준 김초엽 작가는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각각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비 넥스트(Be Next)’라는 ‘벡델데이 2021’ 슬로건과 꼭 맞는 김초엽 작가의 ‘벡델 클래스’는 여성 캐릭터 창작과 SF여성 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모더레이터로는 영화 전문 이화정 기자가 함께 한다. 새로운 SF서사와 여성 캐릭터의 창작론, 소설가가 바라보는 한국 영화의 세계, K-SF의 신드롬과 영화의 크로스 컬처 탐방 등 풍성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전순희/기자

에린, 빅보스 엔터 전속계약 체결... 배우 전향 “새로운 출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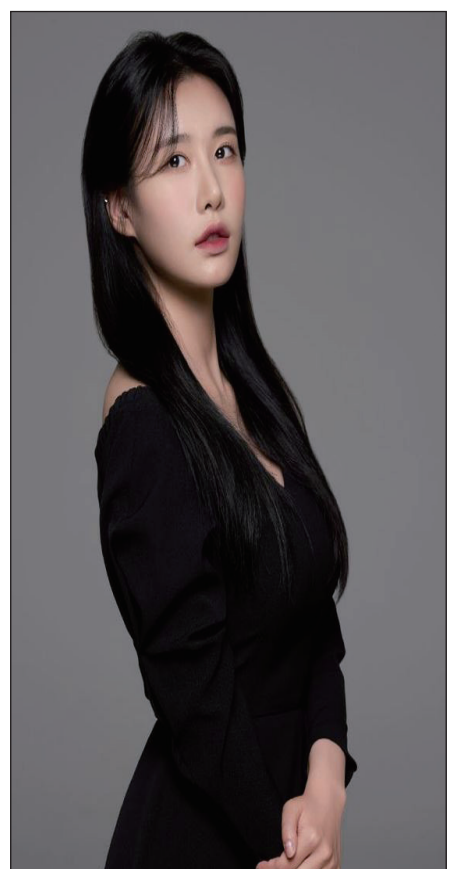
설에린이 활동명을 “에린”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녀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빅보스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에린은 가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끼를 갖고 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걸그룹 플레쉬로 데뷔한 에린은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과 실력은 물론, 다수의 뮤직비디오 출연 및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등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그 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선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밝힌 그녀는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연기가 되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유의 톡톡 튀는 에너지와 시선을 사로잡는 시원한 외모로 눈도장을 찍어온 에린은 빅보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실력과 권순관, ‘너는 나의 봄’ OST 참여!

서현진 테마곡 ‘클리셰’ 가창자 발탁. 8월 10일 오후 6시 발매

10일 ‘너는 나의 봄’의 OST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 마음C 측은 “남성 듀오 노리플라이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권순관이 여덟 번째 OST ‘Cliche (클리셰)’를 부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발매되는 ‘클리셰’는 주인공 다정(서현진)의 테마곡으로, 그녀가 꿈꾸는 행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상하고 뻔할 수 있는 일들이 다정에게는 더없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노래 후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구는 강한 중독성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OST 제작사 측은 “권순관의 잔잔하면서도 섬세한 보컬과 담백한 가사, 멜로디의 힘이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주인을 만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후렴 부분의 절제된 듯한 스캣의 가창은 듣는 사람을 설레게 만든다. 이 곡은 영도와 다정 달콤한 데이트 씬에 이미 여러 번 삽입되며 시청자들의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관은 지난 2008년 노리플라이로 데뷔한 후 ‘끝나지 않은 노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내가 되었으면’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이후 2013년 솔로 활동을 시작해 정규 앨범 ‘A Door’, ‘Connected’ 등을 발매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 성시경, 정승환, 권진아, 소유, 이승기를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의 앨범에 작곡 및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뮤지션들이 인정하



는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다.

권순관이 부른 ‘Cliche’는 10일 오후 6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배우 서현진, 김동욱이 주연으로 나선 작품으로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는다.

‘너는 나의 봄이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작가이자 드라마 ‘풍선껌’을 집필한 이미나 작가와 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을 연출한 정지현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최재은/기자